

중국의 판시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 신세대 농민공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중국지역전공

채 소 린

중국의 판시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 신세대 농민공을 중심으로 -

지도 류 석 춘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7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중국지역전공

채 소 린

채소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류 석 준 

심사위원 박 명 립 

심사위원 장 원 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년 7월 일

차 례

표 차례	ii
국문요약	iv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2
(1) 복지혼합에 관한 기존연구	2
(2) ‘판시’가 농민공에게 제공한 복지에 관한 기존연구	9
제 3 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3
(1) 연구대상.....	13
(2) 연구방법.....	17
제 2 장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현황	20
제 1 절 신세대 농민공의 물질적 복지현황	21
제 2 절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교육·심리적 복지현황.....	28
제 3 절 소결	34
제 3 장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 사례.....	35
제 1 절 베이징 ‘노동자의 집’	35
(1) ‘노동자의 집’ 설립자들의 판시 형성과정	35
(2) 문화·교육·심리적 복지 및 물질적 복지의 실현과 새로운 판시 형성	39
(3) 대안적인 복지주체로서의 가능성 탐색	50

제 2 절 항저우 ‘민초의 집’	61
(1) ‘민초의 집’ 설립자들의 판시 형성과정	61
(2) 문화·교육·심리적 복지 및 물질적 복지의 실현과 새로운 판시 형성	63
(3) 대안적인 복지주체로서의 가능성 탐색	72
제 3 절 소결	74
제 4 장 사례분석 결과	75
제 1 절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를 통한 복지 실현	75
제 2 절 농민공 공동체 사이의 상호교류를 통한 복지 실현	78
제 3 절 다른 공동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복지 실현	82
제 4 절 소결	83
제 5 장 결론	84
참고문헌	89
ABSTRACT	98

표 차례

표 1-1: 신세대 농민공의 총수와 지역분포	14
표 1-2: 농민공이 도시에서 인정받고 싶은 정도	15
표 1-3: 농민공의 인력자본 특징	15
표 1-4: 주요 산업별 신세대 농민공의 분포	16
표 2-1: 신세대 농민공의 소비구조	22

표 2-2: 농민공의 공회(노동조합) 가입율	24
표 2-3: 2009년 주요산업 신세대 농민공 사회보험 점유율(覆盖率, 覆盖率).....	26
표 4-1: 노동자의 집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농민공 자치 공동체	79

중국의 판시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 신세대 농민공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 농민공이 판시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신세대 농민공은 시장논리로 점철된 도시에서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원자화’ 그리고 ‘상품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시인이 되고 싶은 소망으로 도시로 이주해온 신세대 농민공은 정작 도시에서 외지인,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도시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는 신세대 농민공을 인격체로 대우하기 보다는 하나의 기계로 간주하여 이들의 노동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회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하지만 중국의 복지현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사회구조로 인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도시 출신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 집단인 신세대 농민공의 경우에는 국가의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중국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지만 인구대국이며 경제개발이 한창인 중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보편적 복지의 관점으로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복지혼합의 관점에서는 국가 이외에도 기업, 시장, 제3영역, 비공식 부문(가족, 친구, 이웃) 등 다양한 대상이 복지주체가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인간관계에 기초한 판시가 신세대 농민공의 대안적인 복지주체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중국의 신세대 농민공은 판시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스스로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었다.

사례로 등장하는 베이징 ‘노동자의 집’과 항저우 ‘민초의 집’은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차별과 소외를 겪는 과정에서 ‘농민공’이라는 이름아래 쉽게 친구가 되고 판시를 형성하여 농민공 자치 공동체를 건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두 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에 있어 크게 세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판시에서 기인한 신세대 농민공 공동체가 공동체 내부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교육·심리적 측면의 복지에 도움을 주는 것과 또 다른 농민공 공동체를 파생시킨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외부의 농민공들까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든 문화를 소비함으로써 정신문화적인 복지향상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판시에서 기인한 농민공 공동체들은 독립적이거나 경쟁적인 구도가 아니라 공동체 간의 상호교류와 상호부조가 활발한 열린 형태의 공동체로서 갈수록 많은 신세대 농민공이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판시에서 기인한 농민공 공동체는 지방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과 같은 다른 복지주체의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판시가 대안적인 복지주체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후원을 받아 더 많은 신세대 농민공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도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상대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생존’이 아닌 ‘생활’을 원하며 영원한 도시인이 되는 것이 목표인 신세대 농민공은 ‘원자화’, ‘상품화’의 위기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여 스스로를 위한 보호장치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다. 신세대 농민공 개개인은 연약할 수 있어도 이들이 공동체로 존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중국사회에서 영향력이 생기다보니 현재 이러한 농민공 공동체들은 중국에서 NGO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각종 회의에 초청받아 제도권에 자신들의 복지실태 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농민공 자치 공동체들은 국가와 시장에 대항하는 제3영역으로서의 NGO와는 달리 국가의 도움을 받고 국가와 협력하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한다는 점에서 서구적인 개념의 NGO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복지혼합, 중국 복지, 신세대 농민공, 판시, 네트워크, 공동체, 중국 NGO, 상호부조, 심리적 복지.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중국은 1978 년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총체적인 사회변화를 맞이하였다. 복지제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문화대혁명 시기를 제외한다면 중국은 호구(戶口)제도를 바탕으로 도시사람들은 단위(單位, 單位)에, 농촌사람들은 인민공사(人民公社)에 소속되어 생활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사회구조로 인해 도시 사람들은 단위로부터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받은 반면, 농촌의 사회보장제도는 미비하였다. 그러나 농촌 사람들 역시 인민공사로부터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도시의 경우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위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혜택이 축소되었다. 농촌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는데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집체경제가 와해됨에 따라 기존의 복지주체가 사라졌으나 이를 대체할만한 복지주체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와 더불어 복지혜택의 격차도 더욱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축소된 상황에서 그 혜택마저 도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산업재해보험), 생육보험(출산보험)의 혜택은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현재까지 농촌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2010 년도에 사회보험법을 제정하였지만 사회보험의 혜택이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농촌출신 사람들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 하다.¹ 물론 중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 이외에도 시장이라는 거대한 복지주체가 존재한다. 하지만 시장복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거대한 복지주체인 국가와 시장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사회적

¹ 李志明, 2011, “社会保険法亮点、缺憾及后续立法方向,” 『河南科技学院学报』 01, pp.8-11.

약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경영인과 같은 배운 자, 가진 자에게 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사회는 계층간의 불평등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부의 세습을 의미하는 ‘푸얼파이’[富二代]와 권력의 세습을 의미하는 ‘관얼파이’[官二代]와 같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하는 것은 중국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 정부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인구대국인 중국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농촌출신 인구만 10 억에 가깝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관점으로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들의 복지를 국가가 감당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복지의 주체가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복지주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농업사회의 특성과 유교적 가치의 영향으로 ‘공동체 전통’이 발달하였고 그에 따른 ‘판시’[关系, 關係]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가 국가, 시장, 기업 등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 ‘공동체 복지’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제 2 절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1) 복지혼합에 관한 기존연구

복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 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이다. 당시 사회복지를 둘러싼 정책결정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은 ‘국가복지’에 모아져 있었고, 다른 공급주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은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간과되고 있는 상황이었다.²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는 인간의 ‘탈상품화’를 위해 출발하였고 역사적으로 각 국가들마다 ‘탈상품화’ 구사전략에 관해서는 차이가

² 신동면, 2001, “한국의 복지혼합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45, p.223.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탈상품화’의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를 크게 ‘자유주의 모델’, ‘보수주의 모델’, ‘사회 민주주의 모델’로 분류하였다.³

하지만 1970년대 초 석유과동으로 인해 전세계에 불황이 닥치면서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은 위기를 맞이하였고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케인즈-베버리지형’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복지혼합경제’는 ‘복지혼합’ 또는 ‘복지다원주의’로도 불리는데 이러한 논의는 ‘자유주의 모델’에 속하는 영국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⁴ 그 결과 1980년대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더 이상 ‘국가복지’와 ‘사회복지’를 동의어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공급주체의 역할에 관심을 지니고 포괄적 사회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⁵

일반적으로 복지혼합에서 복지주체로 거론되는 것은 국가 이외에도 시장, 기업, 제 3 영역, 비공식 부문(가족, 이웃, 친구)등이 있다. 많은 서양 학자들은 제 3 영역에 관심을 갖는데 에버스(Evers)는 제 3 영역을 시민사회의 구성요소인 공적 영역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자발적 결사체와 비영리 기구가 복지제공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⁶ 무엇보다 제 3 영역은 복지혜택의 적용 범위가 넓어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기에 적합한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공산당정부가 시민사회의 출현을 통제,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적인 개념의 제 3 영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중국의 사회적 약자인 신세대 농민공에게 적합한 복지주체로는 무엇이 있을까? 중국 사회에는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인간관계에서 기인한 ‘판시’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으며 신세대 농민공의 경우에도 ‘판시’를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국가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신세대 농민공에게 판시에 기반한 ‘공동체’가 대안적인 복지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³ 에스핑 앤더슨 저·박시종 역, 2007,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p.62-80.

⁴ 김진욱, 2004, “복지혼합의 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연세 사회복지 연구』 11, p.2-8.

⁵ 신동면, 2001, p.227.

⁶ Adalbert Evers, 1995, “Part of the Welfare Mix: The Third Sector as An Intermediate Area,”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6(2), p.176.

그렇다면 판시란 무엇일까? 사실 판시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르다. 우선, 판시를 느슨하게 번역하면 ‘connections’ 정도이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realation’, ‘relationship’이 되기도 한다.⁷ 하지만 이러한 번역을 바탕으로 판시를 단순히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정도로 개념화한다면 이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판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생긴다. 실제로 판시가 학계에서 연구주제로 주목을 받게 된 것도 개혁개방 이후 외국기업이 중국에 와서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판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중국사회 곳곳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판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대인관계라는 설명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이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판시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나, ‘네트워크’(network)와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부르디외(Bourdieu)의 정의를 따르면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다.⁸ 그리고 이러한 사회자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연결망’과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⁹ 이렇게 판시를 사회자본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논의들은 주로 중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⁰

다음으로, 판시를 ‘네트워크’(network)의 한 형태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중국에서는 ‘판시왕’[关系网, 關係網]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왕’[网, 網]은 곧 ‘네트워크’를 의미하므로 ‘판시왕’ 자체가 판시를 ‘네트워크’로 해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판시를 ‘네트워크’로 보는 학자들은 그라노베타(Granovetter)의 ‘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라노베타는 ‘강한 유대’(strong ties)로 연결된

⁷ Thomas Gold, Douglas Guthrie, and David Wank, 2002,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GUANXI,” *Social Connections in China : Institutions, Culture, and the Changing Nature of Guanxi*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6.

⁸ Pierre Bourdieu,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⁹ 류석춘, 장미혜, 2002, “한국의 비영리 비정부 영역과 사회발전: 연구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사회, 연구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p.160.

¹⁰ Yunxiang Yan, 1996, *The Flow of Gifts: Reciprocity and Social Networks in a Chinese Vill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Alan Smart, 1993, “Gifts, Bribes, and Guanxi: A Reconsideration of Bourdieu's Social Capital,” *Cultural Anthropology* 8(3).; 刘林平, 2002, 『关系, 社会资本与社会转型: 深圳“平江村”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郑也夫, 彭泗清, 2003, 『中国社会中的信任』 (中国城市出版社).

사람들은 신분이나 지위가 같아서 정보의 중첩이 발생하지만, ‘약한 유대’(weak ties)로 연결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단체에 속해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약한 유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리고 이 가설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때 정보의 중첩을 피하기 위하여 상호교류가 빈번하지 않거나 친밀도가 낮은 ‘약한 유대’를 이용하는 것으로써 증명되었다.¹¹

이와 같이 판시를 ‘네트워크’로 해석하는 벤(Bian)과 앙(Ang)의 경우에는 그라노베타(Granovetter)의 이론을 중국사회에 적용하여 텐진[天津]에서 현지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서구사회와 달리 중국은 직업을 바꿀 때 ‘약한 유대’보다 ‘강한 유대’를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¹² 이 밖에도 여러 학자들이 중국사회의 혈연[血缘, 血緣], 지연[地缘, 地緣], 업연[业缘, 業緣] 관계 등을 언급하며 ‘판시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¹³ 그리고 이러한 연구경향은 신세대 농민공의 ‘판시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황위린[黄毓琳]은 신세대 노동자 문화의 특징은 혈연, 지연, 업연이 서로 교류하는 추세라고 말하였으며, 송양[宋阳, 宋陽]은 1 세대 농민공이 혈연, 지연을 중시했다면 신세대 농민공은 혈연, 지연 이외에도 ‘업연’을 점차 중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⁴ 그리고 이렇게 판시 네트워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은 판시가 중국의 문화적, 역사적인 특수성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판시를 중국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가진 한국의 혈연, 지연, 업연과 같은 ‘네트워크’의 한 형태로 보고 그 중에서도 신세대 농민공이 ‘업연’을 토대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혈연, 지연, 업연이 전근대적인 행동양식이며 부정부패의 주범이

¹¹ Mark Granovetter,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in Peter Marsden and Nan Li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Sage Publications).

¹² Yanjie Bian, Soon Ang, 1997, “Guanxi Networks and Job Mobility in China and Singapore,” *Social Forces* 75(3).

¹³ Ambros Y.C King, 1991, “Kuan-hsi and Network Building: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Daedalus* 120(2), pp.63-84.; 何宏光, 李远行, 2008, “中国社会语境下关系网的发生、运作和变迁,” 『安徽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01, pp.155-156.; 黄先碧, 2008, “关系网效力的边界来自新兴劳动力市场的实证分析,” 『社会』 06, pp.39-42.; 高文盛, 席嘉资, 2002, “资源辨析: 社会网视角中的关系网——关系网研究扫描,” 『中南民族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04, pp.33-36.

¹⁴ 黄毓琳, 2009, “论青年农民工打工文化的塑造,” 『中国青年研究』 10, p.33.; 宋阳, 2011, “新生代农民工心理问题与价值观变迁研究述评,” 『南京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03, p.71.; 齐心, 2007, “延续与建构: 新生代农民工的社会网络,” 『江苏行政学院学报』 03.

된다고 생각하여 판시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견해는 판시의 도구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판시가 현대 중국시기에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등장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에게서 나타나며 대표적으로는 왈더(Walder), 오이(Oi), 귀더(Guthrie) 등이 있다. 이러한 학자들은 대개 판시가 중국만의 특수한 것이 아닌 여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왈더(Walder)는 판시를 주택, 임금 이외의 혜택 및 승진과 같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강력한 행위자인 ‘단위’의 존재 속에서 출현한 일종의 ‘후원자-수혜자(patron-client)’ 관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자원이 부족했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도 등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이(Oi)는 현대 중국의 지방정부에서 등장했던 ‘후원자-수혜자’ 관계는 전통 중국에서 개인 관계를 중요시 했던 것과 유사하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 고유의 것이나 전통도 아닌 다양한 사회에서 발생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⁵ 리디니베(Ledeneva) 역시 경제적 결핍과 법적인 기반이 약하여 경제이행기에 네트워크와 신뢰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의 블랏(blak)이 판시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¹⁶

귀더(Guthrie)의 경우 왈더(Walder)와 오이(Oi)의 이론을 더욱 확장시켜 판시가 중국 사회의 문화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개혁개방시기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이며 법과 제도가 완비될수록 판시는 점차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귀더(Guthrie)는 ‘판시’와 ‘판시 관행’(practice)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판시’는 시장경제에서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성립할 때 바람직한 것이지만 ‘판시 관행’은 ‘뒷문’(backdoor)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제 중국 도시의 대기업에서 ‘판시 관행’을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곧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에서도 판시 관행보다 법, 규칙 등이 강력한 경제행위자라고 주장한다.¹⁷

¹⁵ Andrew G Waler, 1986,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ean Oi, 1988, “The Chinese Village,” in Bruce Reynolds ed., *Chinese Economic Policy: Economic Reform at Midstream* (New York: Paragon House), pp.67-87, Thomas Gold, Douglas Guthrie, and David Wank, 2002, pp. 13-15에서 재인용

¹⁶ Alena V Ledeneva, 1998, *Russia's Economy of Favou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¹⁷ Douglas Guthrie, 1998, “The Declining Significance of Guanxi in China's Economic

실제로 귀더(Guthrie)는 1995년 상하이[上海]에 있는 공무원과 산업기관의 관리자 총 15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인터뷰 대상자들이 대체로 시장에서 판시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판시보다 가격과 질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¹⁸ 하지만 이러한 귀더(Guthrie)의 주장에 대하여 양(Yang)은 판시는 사람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인데 이를 국가에 소속된 공장 관리자들에게 두 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도출한 귀더(Guthrie)의 결론이 과연 옳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양(Yang)은 오히려 ‘판시’가 도시 산업영역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현상은 사영[私營, 私營]기업과 국유기업 관리자들에게도 나타나며 특히 공무원들에게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경제체제에서도 여전히 국가 주도의 경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중국에서 수입, 대출, 세금혜택과 같은 유용한 시장정보를 얻거나 불리한 법과 규칙에서의 면제를 요구 할 때 공무원들이 판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판시를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 또한 양(Yang)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판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²⁰

따라서 판시를 현대 중국의 제도적인 이행기에 등장한 것으로 해석하다 보면 법과 제도가 점차 모습을 갖추어가는 현재까지 판시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양(Yang)과 같이 판시가 전통 중국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²¹ 마충[马聪, 马聰]은 전통 중국의 농촌사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물적 기초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각 가정들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대출, 혼인, 장례, 건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혈연을 넘어서

Transition,” *The China Quarterly* 154, p.255.

¹⁸ Douglas Guthrie, 1998, pp.269-281.

¹⁹ Mayfair Mei-hui Yang, 2002, “The Resilience of Guanxi and Its New Deployments: A Critique of Some New Guanxi Scholarship,” *The China Quarterly* 170, pp.462-464.

²⁰ Kwang-kuo Hwang, 1987, “Face and Favor: The Chinese Power Ga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4), pp.944-974.; Andrew B Hwang, 1997, *Producing Guanxi: Sentiment, Self, and Subculture in a North China Villag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Yunxiang Yan, 1996, “The Culture of Guanxi in a North China Village,” *The China Journal* 35, pp.1-23.; John H. Dunning, Changsu Kim, 2007, “The Cultural Roots of Guanxi: An Exploratory Study,” *The World Economy* 30(2).

²¹ Mayfair Mei-hui Yang, 1994, *Gifts, Favors, and Banquets: The Art of Social Relationship -s in China* (Cornell University Press).

지연, 친구관계 등을 이용하여 상호부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판시가 발전하였다고 보고 있다.²²

뤄(Luo)는 판시가 중국의 경제발전 이후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판시의 뿌리는 기원전 6 세기에 유교가 사회 규범으로 지정된 이래로 수직적인 위계질서와 함께 ‘동심원’ 모양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²³ 이 부분에서 페이샤오통[费孝通]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이샤오통[费孝通]은 중국 사회구조의 틀은 돌덩어리를 던지면 수면 위에 동그라미를 발생하며 ‘동심원’을 밀어내는 과문과 같다고 말하며 이 동심원은 ‘오륜’(五伦, 五倫)에 따라서 외부로 확장된다고 주장하였다.²⁴

유교의 ‘인’(仁)은 사람(人)과 둘(二)의 결합으로 두 사람을 의미하는데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妻, 夫婦), ‘장유’(长幼, 長幼), ‘붕우’(朋友) 이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인’의 형태이며 이러한 인간 관계를 규제하는 ‘친’(亲, 親), ‘의’(义, 義), ‘별’(别), ‘서’(序), ‘신’(信)을 뜻하는 것이 ‘오륜’이다.²⁵ 오륜에서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차 외연을 확장시켜 군신관계로 그 관계가 확대되는데 이것이 바로 ‘동심원’ 형태를 띄는 것이다.²⁶ 따라서 페이샤오통[费孝通]은 ‘동심원’ 형태인 중국의 사회구조에서 공과 사는 상대적인 것이며 사회관계는 개인적인 관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⁷ 따라서 유교에서 말하는 개인은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관계’속에서 규정되는 개인인 것이며 서구가 ‘개인’ 그 자체를 강조하는데 반해 유교는 개인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⁸

정리해보면, 판시의 문화적, 역사적인 특수성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전통 중국시기의 ‘공동체 문화’와 유교의 ‘오륜’에 바탕을 둔 ‘동심원’ 구조의 인간관계에서 ‘판시’가 발전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시는 전통 중국의 문화적,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 판시는 중국사회에서 도구적인

²² 马聪, 2001, “关系网的渊源与村落经济的重组,” 『学习论坛』 002, pp.19-20.

²³ Yadong Luo, 1997, "Guanxi: Principles, Philosophies, and Implications," *Human Systems Management* 16, p.45.

²⁴ 웨이샤오통 저·이경규 역, 1995, “차등순서의 틀,” 『중국사회의 기본구조』 (서울: 一潮閣), pp.31-35.

²⁵ 박기순, 1994, “유교에서 본 인간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일 고찰: 모형정립적 접근,” 『한국언론학보』 p.132.

²⁶ 강진석, 2006, “중국 판시의 구성요소와 근경사례 연구,” 『중국연구』 37, p.265.

²⁷ 웨이샤오통 저·이경규 역, 1995, pp.38-39.

²⁸ 이동일, 2011, “공동체에 있어서 유교적 가치의 함의,” 『동양사회사상』 4, p.145.

기능뿐 아니라 감정적인 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구적 기능과 감정적 기능을 동시에 가진 판시의 ‘이중성’을 인정한 학자로는 링마(Ringmar)가 있는데 그는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시장에서조차 판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판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바로 판시가 시장 세력의 전면적인 충격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²⁹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판시가 지닌 도구적 역할 뿐 아니라 감정적 역할을 인정하여 판시가 도시에서 ‘상품화’, ‘원자화’ 되어가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판시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시장논리로 점철된 도시에서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판시’가 농민공에게 제공한 복지에 관한 기존 연구

중국에서 판시가 농민공의 복지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은 1 세대 농민공 시기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이 판시를 통하여 도시로의 이주 및 취업과 거주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도시에서의 취업과 관련하여 크롤(Croll)은 중국은 1990 년대에 들어서 이전 ‘단위’에서 담당하던 사회복지의 주체가 세분화 되었다고 말하며 새로운 복지 경향으로 시장, 비영리 조직, 비공식적 공동체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크롤(Croll)은 그 중에서도 비공식적 공동체와 가족은 이주가 증가하면서 그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거주 지역의 호구가 없어 정부로부터의 복지를 지원받을 수 없는 베이징 이주민을 예로 들며 이들이 동향관계에 기반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도시에서 학교와 병원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³⁰

리페이린[李培林]은 농민공이 “땅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는”(离土离乡, 离土离乡) 사회교류 중에 취업정보를 얻고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이 대부분 혈연, 지연과 같은

²⁹ 에릭 링마 저·왕혜숙 역, 2011, “3장: 형제, 친구, 동료 사이,” 『자본주의 구하기』 (북앤피플), pp.143-150.

³⁰ Elisabeth J. Croll, 1999, “Social Welfare Reform: Trends and Tensions,” *The China Quarterly* 159, pp.694-696.

사회관계 연결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¹ 왕이제[王毅杰, 王毅傑]와 통싱[童星]은 농민공은 도시에서의 취업 정보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가족, 친구와 같은 판시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² 자오(Zhao)는 농민공이 혈연, 지연에 기반한 사회 연결망에 의존하여 도시로의 이주, 고용, 정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하며 결국 이주민 연결망이 확대될수록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도시로 이주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³³

이와 같이 판시가 농민공의 취업복지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연구 경향은 신세대 농민공 시기로 넘어와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홍옌[李红艳, 李红紅]은 2007년 6월~2008년 5월 베이징[北京]시 하이덴[海淀]구에서 300명의 신세대 농민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신세대 농민공의 64.6%는 친구, 고향사람, 친척의 소개를 통하여 취업정보를 얻었고 24.7%는 스스로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장사를 하였으며 소수가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취업정보를 얻는다고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신세대 농민공이 이직을 할 경우에도 이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1%의 신세대 농민공 중 60.4%는 고향사람이나 친척, 친구의 소개로 취업정보를 얻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³⁴

장레이[张蕾, 張蕾]와 판팡[潘芳]의 경우는 항저우[杭州]시에 거주하는 신세대 농민공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신세대 농민공의 59.4%가 도시에서의 첫 번째 일자리 정보를 친척, 친구, 인력모집 팀(招工队, 招工隊), 고향사람을 통하여 얻는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 정보를 스스로 찾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 정부기관과 광고매체로부터 취업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9%에 그쳤다. 그리고 현재 일하는 곳의 취업 정보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서도 63.9%가 친구, 친척, 동창, 동료, 가족, 고향사람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레이[张蕾, 張蕾]와 판팡[潘芳]은 사회 연결망은 도시로 이주한 신세대 농민공에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⁵

³¹ 李培林, 1996, “流动民工的社会网络和社会地位,” 『社会学研究』 04, pp.45-50.

³² 王毅杰, 童星, 2004, “流动农民社会支持网探析,” 『社会学研究』 02, pp.43-47.

³³ Yaohui Zhao, 2008, “The Role of Migrant Networks in Labor Migration: The Case of China,”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21(4), pp.500-511.

³⁴ 李红艳, 2011, “新生代农民工就业信息获取渠道中的断裂现象,” 『青年研究』 02, p.16.

³⁵ 张蕾, 潘芳, 2011, “新生代农民工社会网络构成及作用分析,” 『经济研究导刊』 34, pp.128-130.

국가가 신세대 농민공에게 도시의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미비하고 신세대 농민공에 관해 보유하고 있는 취업 정보망 역시 불완전한 상황에서 판시가 농민공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은 농민공의 복지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³⁶ 그러나 신세대 농민공은 1 세대 농민공과 달리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신문화적인 부분의 복지까지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판시가 신세대 농민공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가 농민공의 거주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기존연구로는 ‘동향촌’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마(Ma)와 상(Xiang)은 베이징의 동향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같은 지역 출신의 농촌 사람들은 혼자 도시로 이주하기 보다는 작은 ‘그룹’을 형성하여 함께 도시에 와서 고향친구나 동향관계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거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농민공이 자발적으로 도시의 교외 지역에서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 돕고 지내는 이유는 도시에서 적당한 거주지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마(Ma)와 상(Xiang)은 1994 년에 베이징의 저장[浙江]촌, 신장[新疆]촌, 허난[河南]촌, 안후이[安徽]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저장촌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1980 년대 저장성 원저우[温州] 사람들이 베이징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형성된 저장촌은 원저우인 특유의 비즈니스 감각을 발휘하여 베이징과 중국 북쪽 지역의 가죽재킷 시장을 독점하고 중저가 의류의 제조와 마케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³⁷ 왕춘광[王春光]은 저장촌은 경제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생활, 노동, 오락기능이 결합된 하나의 지역사회라고 주장하였는데 저장촌에는 자체적으로 유치원, 음식점, 이발소, 진료소 등을 갖추고 있었고 저장인들은 저장촌 내의 여러 활동을 통하여 사회 관계망을 형성해갔다고 말한다.³⁸

정종호 역시 베이징의 동향촌은 1990 년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 년 당시에는 저장촌, 허난촌 등과 같은 동향촌이 도시 속의 농촌인 ‘성중촌’(城中村)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베이징의 동향촌들은 전성기인

³⁶ 包丽颖, 陈柳钦, 2011, “新生代农民工就业困境再探讨,” 『中国青年研究』 04, p.76.

³⁷ Laurence J.C Ma, Biao Xiang, 1998, “Native Place, Migration and The Emergence of Peasant Enclaves in Beijing,” *The China Quarterly* 155, pp.560-577.

³⁸ 王春光, 1995, 『社会流动和社会重构: 京城浙江村研究』 (浙江人民出版社), p.31.

1995 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베이징시 정부의 대규모 철거와 도시재개발로 인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⁹

사실 동향촌은 베이징뿐 아니라 1990 년대 경제개발이 활발했던 대도시에서 유사하게 발전하였는데 판(Fan)과 타우프만(Taubmann)은 1995 년 당시 상하이에는 12~15 개 정도의 이주민 집단 거주지가 존재하였으며 대부분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동향촌이 위치한 도시의 외곽 지역은 1980 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농업과 전통적인 농촌마을과 공장, 창고들이 혼재해 있는 장소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농업지역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마을은 갈수록 많은 건물들이 세워져 인구밀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⁴⁰

따라서 동향촌은 1 세대 농민공이 도시로 이주하여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때 거주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도시개발의 관점으로 동향촌을 바라보는 시선이 증가하고 있어서 대도시의 많은 동향촌이 철거되고 있는 상황이다. 쩡샤오룽[曾小龙]과 후우셴[胡武贤, 胡武賢]같은 경우는 외지인이 모여 사는 동향촌은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아 도시의 치안을 악화시킨다고 까지 주장한다. 그리고 농민공이 도시에 융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동향촌을 지목하면서 외지인들끼리만 연대를 하다보니 도시 주민들과 섞일 기회가 적고 외지인 스스로 도시 주민과의 경계를 긋는다고 주장한다.⁴¹

하지만 도시 주민이 먼저 농민공과의 교류에 선을 긋고있는 상황에서 농민공이 동향관계에 의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질적인 복지와 더불어 정신문화적인 복지를 추구하기 시작한 신세대 농민공의 경우 동향촌을 대신할 만한 ‘공동체’의 존재는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동향촌의 도구적인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사실 동향촌은 농민공이 소속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공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판시가 농민공에게 제공하는 복지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도시에서의 정착, 취업, 거주문제 해결과 같이 물질적인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³⁹ 정종호, 2008, “베이징시의 도시재개발 정책과 베이징 동향촌의 변화,” 『현대중국연구』 2, pp. 39-42.

⁴⁰ Jie Fan, Wolfgang Taubmann, 2002, “Ch12: Migrant Enclaves in Large Chinese Cities,” in John R. Logan ed., *The New Chinese City: Globalization and Market Reform* (Oxford: Blackwell Publishers), pp.193-194.

⁴¹ 曾小龙, 胡武贤, 2008, “多元化治理:破解同乡村管理难题的良方,” 『求实』 01, pp.55-56.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농민공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를 도출하는 양적 방법론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신세대 농민공은 물질적 복지뿐 아니라 정신문화적인 측면의 복지까지 원하고 있으며 자신들 개개인의 목소리와 의견을 사회에 표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도시의 문화를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며 도시에서 외지인 취급을 받거나 무시 받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세대 농민공이 판서를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체 내의 상호부조 또는 다른 공동체와의 결합을 통하여 물질적인 복지뿐 아니라 정신문화적인 복지를 실현해가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글의 연구대상은 신세대 농민공이다. 연구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은 현재 중국에서 사회적 약자는 누구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개발 혜택이 대부분 동부 연해의 대도시 지역에게 돌아갔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도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부분 돌아갔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10 억에 가까운 농촌 호구를 가진 중국인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고 광범위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농촌출신 사람들 중에서도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홀로 생활하는 중국에서는 ‘유동인구’(流动人口, 流動人口)로 표현하는 ‘이주민’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일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다시 2 억이 넘는 중국의 유동인구 가운데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집단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봉착하였고 결과적으로 ‘바링허우’[八零后, 八零後]가 주를 이루는 신세대 농민공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바링허우는 중국에서 1980 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바링허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개혁개방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 만큼 기존세대에 비해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자랐으며 ‘계획생육’(计划生育, 計劃生育)시대에 태어나서 대부분 핵가족으로 자란 만큼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바링허우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지에서 생계유지의 어려움과 더불어 정서적으로 외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따라서 바링허우의 대표적인 이주민 집단인 신세대 농민공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신세대 농민공은 국무원이 2010 년 발표한 ‘중앙 1 호 문건’에서 1980 년 이후에 출생한 농민공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되었으며⁴² 2009 년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1980 년 이후 출생한 신세대 농민공의 수는 8487 만 명으로 전체 농민공의 58.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 중 72.3%는 동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표 1-1> 신세대 농민공의 총수와 지역분포

신세대 농민공의 총수	8487 만 명	
농민공 총 수 에서 차지하는 비율	58.4%	
신세대 농민공의 지역분포	유출 지역	유입 지역
동부 지역	31.4%	72.3%
중부 지역	38.2%	12.9%
서부 지역	30.4%	14.4%
합계	100%	99.6%

출처: 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10310_402710032.htm, 2012 년 3 월 15 일 검색).

신세대 농민공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1 세대 농민공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에 대한 기대치와 물질·정신상의 욕구가 높고 인내심은 낮은 편이다. 그래서 더럽고 힘들거나 비전이 없는 일을 하기 원치 않으며 수입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기 보다는 돈을 모아서 도시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며 도시 사람들과 경제적·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한다.⁴³ 2012 년 인민(人民)대학과 공중왕[工众网,

⁴² 何奇飞, 陈友庆, 2011, “新生代农民工心理问题分析,” 『经营管理者』 04, p. 78.

⁴³ 王强, 刘冬, 2011, “新生代农民工社会保障问题探究,” 『企业导报』 12, p.27.

工衆網]이 공동으로 중국 20 개 도시의 농민공 2473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민공의 나이가 어릴수록 도시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농민공이 도시에서 인정받고 싶은 정도 단위: (%)

도시 승인	16 세~25 세	26 세~44 세
매우 원함	35.7	35.1
비교적 원함	36.9	34.1
주도적으로 소개하지 못함	21.4	24.5
매우 원하지 않음	5.9	6.3
합계	99.9	100

출처: 中国发展门户网, (http://cn.chinagate.cn/infocus/2012-05/18/content_25417467_8.htm, 2012년 5월 25일 검색).

이처럼 신세대 농민공은 1 세대 농민공과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에 관해서는 표 1-3 에서 알 수 있듯이 신세대 농민공 중 중등전문학교(中专, 中專)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은 각각 9%와 6.4%로 1 세대 농민공의 2.1%, 1.4%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농민공의 인력자본 특징 단위: (%)

교육수준	신세대 농민공(%)	1 세대 농민공(%)	농민공 전체(%)
초등학교	6.3	16.7	10.6
중학교	64.4	65.2	64.8
고등학교	13.5	12.4	13.1
중등전문학교(中专)	9.0	2.1	6.1
전문대학 이상	6.4	1.4	4.3
합계	99.6	97.8	98.9

출처: 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10310_402710032.htm, 2012년 3월 15일 검색).

둘째, 신세대 농민공이 처음 도시로 이주하는 나이는 1 세대 농민공에 비해 낮았다. 농민공이 처음으로 도시로 진입하는 평균 나이는 26 세이며, 그 중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로 처음 진입하는 나이는 20.6 세, 1 세대 농민공은 33.7 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1980 년 이후~1990 년 이전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21.1 세 1990 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17.2 세로 나타났다.⁴⁴

셋째, 1 세대 농민공이 주로 건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였다면 신세대 농민공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감소하였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신세대 농민공이 직업을 선택 할 때 임금수준뿐 아니라 작업 환경, 직업의 비전, 체면 등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주요 산업별 신세대 농민공의 분포 단위:(%)

주요 산업	신세대 농민공	1 세대 농민공	합계
제조업	44.4	31.5	39.1
건설업	9.8	27.8	17.3
교통 운수, 창고, 택배업	5.0	7.1	5.9
도매, 소매업	8.4	6.9	7.8
숙박, 음식업	9.2	5.9	7.8
주민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산업	12.4	11.0	11.8
기타 산업	10.8	9.8	10.3
합계	100	100	100

출처: 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10310_402710032.htm, 2012 년 3 월 15 일 검색).

넷째, 신세대 농민공과 1 세대 농민공의 차이는 도시유입 계기에도 잘 나타나있다. 1960 년대에 출생한 농민공의 경우, 도시로 이주하여 취업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하여’라고 응답한 비율이 76.2%, 1970 년대에 출생한 농민공의 경우 34.9%로 나타났지만 1980 년대 출생한 농민공에 이르러서는 겨우 18.2%에 그쳤다. 또한 1980 년대에 출생한 농민공 중 ‘졸업 후 자신을 단련하기 위하여’, ‘외부 세상을

⁴⁴ 国家统计局 홈페이지, 2011-03-22, 新生代农民工的数量、结构和特.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10310_402710032.htm, 2012년 3월 15일 검색).

경험해보고 싶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고향에서는 재미가 없어서’ 도시로 이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4%로 나타났다.⁴⁵ 이와 같이 신세대 농민공은 1 세대 농민공에 비해 도시 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신세대 농민공과 1 세대 농민공은 차이를 보였다. 신세대 농민공이 스스로를 ‘농민’이라고 인식한 비율은 32.3%로 1 세대 농민공에 비해 22.5% 낮았으며, 스스로를 ‘노동자’(工人/打工者)라고 인식한 비율은 32.3%로 1 세대 농민공에 비해 10.3%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신세대 농민공은 농촌보다 도시의 정체성을 더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⁶

이와 같이 신세대 농민공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의 비전을 위하여 도시로의 이주를 선택하였으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농민공을 ‘생산 요소’로 파악하여 이들의 ‘노동력 이동’에만 관심을 가졌던 기존의 연구들에서 벗어나서 도시에서 ‘상품화’, ‘원자화’ 되어가는 신세대 농민공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지켜가며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볼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신세대 농민공이 판시를 기반으로 형성한 공동체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지금까지 농민공의 복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특정지역의 농민공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임금수준, 주거형태, 사회보험 가입현황 등과 같은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통계로 보여주는 양적 방법론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통계 수치상으로는 신세대 농민공이 처해있는 복지현실이 암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이 현실에 좌절하고 수동적인 태도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숫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주체적인 신세대 농민공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신세대 농민공 개개인의 목소리와 생각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그래서 각 사례들을 연구할 때 문헌 자료 이외에도 신세대 농민공이 직접 만든 영상,

⁴⁵ 全国总工会新生代农民工问题课题组, 2010, “关于新生代农民工问题的研究报告,” 『江苏纺织』 08, p.10.

⁴⁶ 全国总工会新生代农民工问题课题组, 2010, p.11.

사진, 노래 등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러티브’(narrative) 형식으로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이 글에서 판시를 기반으로 형성한 농민공 자치 공동체의 구체적인 사례로 등장하는 곳은 베이징의 ‘노동자의 집’(工友之家)과 항저우의 ‘민초의 집’(草根之家)이다. 두 곳을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서 중국 북방의 내륙 지역을 대표하는 한 지역이 될 수 있고, 항저우는 개혁개방 이후 줄곧 경제개발의 중심에 있는 저장성의 성도(省都)로서 중국 남방의 연해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이징과 항저우 두 지역 모두 중국의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개혁개방 이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만큼 중국 동부 지역은 일찍이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많은 수의 신세대 농민공이 베이징과 항저우로 이주하고 있다.

실제로 표 1-1<신세대 농민공의 총수와 지역분포>에서도 신세대 농민공의 72.3%가 동부 지역에 거주한다고 나타났으며 2011년 중국 국가통계국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중국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광둥[广东, 廣東], 저장, 장쑤[江苏, 江蘇] 산둥[山东, 山東] 4 개의 성(省)에서 흡수하는 농민공의 수는 전국 농민공 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은 16537 만 명으로 전체 농민공의 65.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부 지역은 4438 만 명으로 전체의 17.6%, 서부 지역은 4215 만 명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고 있었다.⁴⁷ 따라서 베이징과 항저우는 농민공이 형성된 초창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무려 30 년이 넘는 농민공의 역사를 함께 해온 지역으로 농민공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베이징 ‘노동자의 집’은 중국 농민공 자치 공동체의 선구자로서 중국 사회와 언론매체의 중심을 받고있고 실제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농민공 자치 공동체를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체이기도 하다. 항저우 ‘민초의 집’의 경우에는 농민공 자치 공동체가 지방정부, 기업과 같은 다른 복지주체들과 결합할 때 어떠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복지혼합의 바람직한 사례로서 연구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⁴⁷ 国家统计局 홈페이지, 2012-04-27, 2011年我国农民工调查监测报告.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20427_402801903.htm, 2012-06-01 검색).

그렇다면 각 사례들이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디까지를 복지로 보아야 할지 즉, 복지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지의 주체는 국가 이외에도 시장, 기업, 제 3 영역, 판시 등과 같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복지 주체들이 실현하는 복지의 내용과 범위 또한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국가, 시장, 기업, 가족이 모두 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각 주체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경제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지라고 하면 여전히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과 같이 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적인 복지 서비스만을 복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눈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인 변화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야만 복지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복지는 실제로 많은 토대에 기초를 두고 있다. 피츠패트릭(Fitzpatrick)은 복지를 장기적 행복, 안전의 정도, 우리의 욕구와 선호가 충족되는지 혹은 억제되는지, 우리가 보상받을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획득하는지 등과 같은 것들에 연관시킨다. 그리고 복지는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무엇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안녕을 보는 방식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지의 주관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⁸

따라서 수치화 할 수 있는 물리적, 경제적 부분의 향상과 더불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심리적, 정신적인 만족까지 복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시적인 부분 역시 개인의 현재 욕구와 선호가 충족된다면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복지향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복지의 내용을 제도적이고 물질적인 복지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세대 농민공이 중시하고 있는 정신문화적인 측면까지 복지의 범주에 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복지의 내용과 범위를 정했다면 다음으로는 사례로 선정한 베이징 ‘노동자의 집’과 항저우 ‘민초의 집’이 정말로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인지부터 시작하여 실제로 두 공동체가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문화적인 측면의 복지향상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문헌 자료와 더불어 TV 방송에 소개 된 인터뷰 및 영상자료, 각 공동체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⁴⁸ Tony Fitzpatrick, 2001, *Welfare Theory: An Introduction* (Palgrave: Houndmills), pp.5-11, 게리 테일러 저·조성숙 역, 2009, 『이데올로기와 복지』 (서울:신정), p.24에서 재인용.

공동체의 활동내용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후기 등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각 공동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잡지나 간행물 또는 중국식 유튜브(YouTube)에 해당하는 유쿠[优酷, 優酷], 투더우[土豆, 土豆]등에 올라와 있는 두 공동체에 관한 동영상 자료 역시 사례검증을 위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문헌 자료의 경우 중국학술정보원(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에 게재된 ‘사회학연구’(社会学研究, 社會學研究), ‘사회’(社会, 社會)와 같은 사회과학 학술지와 ‘당대예술과투자’(当代艺术与投资, 當代藝術與投資)와 같은 문화예술 간행물을 주로 활용하였다. 통계자료는 중국 국가통계국과 중화전국 총공회(노동조합)에서 신세대 농민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TV 프로그램은 중국 대륙 저장 TV 의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과 홍콩의 평항[鳳凰, 鳳凰] TV 의 ‘대중화를 걷다’(走读大中华, 走讀大中華)와 ‘차갑고 따뜻한 인생’(冷暖人生)이라는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였다. 이외에도 공인일보(工人日报, 工人日報),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中國青年報) 등의 신문 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두 농민공 자치 공동체에 관한 미시적인 사례분석을 통하여 검증을 마친 후에는 두 농민공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와 상호교류, 상호부조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판시가 하나의 복지주체로서 국가, 기업과 같은 다른 복지주체와 얼마나 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써 다른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 잘 될수록 대안적인 복지주체로서의 타당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농민공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증가한다면 더 많은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 기업의 입장에서도 신세대 농민공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상대함에 따라 신세대 농민공에 대한 복지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 장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현황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개혁개방 전후로 거시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전이나 이후에나 변함이 없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사회구조로 인해 도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전에도 도시의 사회보장제도는 상당한 틀을 갖추고 있었다. 도시의 경우 연금, 의료, 직업상 재해보상과 같은 ‘노동보험’이 존재했으며 ‘노동능력’, ‘가족’,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현금 급여와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에 대한 정부의 재정보조가 있었다. 반면, 농촌의 경우 집체경제 조직과 농민이 공동으로 기금을 부담하여 운영하는 ‘합작의료제도’, 가족의 지원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음식, 의류, 주거, 의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보공양’(五保供養, 五保供養)제도, 자연재해 발생시에 제공하는 공공부조 정도가 전부였다. 또한 도시지역의 사회보장은 국가의 예산 또는 국영기업의 비용으로 충당하였고 농촌지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집단농장과 같은 농촌집합조직체가 담당하였다.⁴⁹

개혁개방 이후에는 도시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혜택과 적용범위가 기존보다 대폭 축소되었고 복지제공의 역할도 국가 이외에 기업, 시장으로 다각화되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에는 개혁개방 이후 집체경제가 와해됨에 따라 미비했던 사회보장제도마저 사라져버렸다. 다행히 후진타오 집권 이후 ‘조화사회’(和諧社會, 和諧社會)를 제창하며 민생안정과 복리후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농촌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중국 농촌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농촌 의료보험인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와 농촌양로보험, 최저생활보장제도 등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구조사업을 실시하고 과거의 ‘오보공양’제도를 재정비 하였으며 또한 도시화로 인해 토지를 잃은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하여 사회보장을 실시하는 등 사회보장의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⁵⁰

하지만 문제는 호구 소재지를 벗어나 있는 신세대 농민공과 같은 이주민 집단이다. 이들은 농촌과 도시의 사회보장제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제 1 절 신세대 농민공의 물질적 복지현황

⁴⁹ 오정수, 2006, 『중국의 사회보장』 (집문당), pp.31-33.

⁵⁰ 董星, 林閩鋼, 『中国农村社会保障』 (北京: 人民出版社), pp.145-316.

도시에서 신세대 농민공의 현실은 수입이 적고 불안정하며 직업 선택의 폭도 좁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도시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어렵다.⁵¹ 2010년 1000개 기업에서 일하는 신세대 농민공의 평균 월급은 1747.87 원(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3046.61 원(元) 임을 감안하면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 노동자 월급의 57.4% 정도를 받음을 알 수 있으며 1세대 농민공의 평균 월급(1915.14 원) 보다도 167.27 원(元)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세대 농민공이 매년 직업을 바꾸는 횟수 역시 0.26 회로 이는 1세대 농민공(0.09 회)에 비해 2.9 배 높은 것으로 직업안정성 역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⁵²

따라서 도시의 높은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은 정작 돈을 벌어도 자기개발이나 문화생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예로, 2009년 1~2월에 전국 24개 성의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신세대 농민공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신세대 농민공의 수입 중 33.91%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신세대 농민공의 소비구조 단위: (%)

소비 항목	숙식	의복	통신	오락	인정 (人情)	집으로 송금	저축 투자	기타	합계
평균 비율	22.88	11.03	7.25	6.94	7.31	21.63	16.79	6.69	100.52

출처: 唐有财, 2009, “新生代农民工消费研究,” 『学习与实践』 12.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신세대 농민공이 1세대 농민공에 비해 자기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40%에 가까운 수입을 고향집에 보내거나 저축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화생활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6.94%에 그쳤다. 따라서 도시의 비싼 물가와 고향 집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세대 농민공이 의식주를 제외하고 스스로를 위해 소비하는 돈은 적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로 이주를 결심했을 때는 꿈도 많고

⁵¹ 何奇飞, 陈友庆, 2011, p.78.

⁵² 工人日报, 2011-02-21, 2010年企业新生代农民工状况调查及对策建议. (<http://acftu.people.com.cn/GB/67582/13966631.html>, 2012년 3월 20일 검색).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신세대 농민공은 정작 도시로 이주한 후에는 1 세대 농민공과 처한 현실이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신세대 농민공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0 년 발생한 ‘혼다(本田, Honda) 노동자의 파업사건’과 ‘팍스콘(富士康, foxconn) 노동자의 연쇄 자살사건’을 들 수 있다.

광둥성 포산(佛山)시 난하이[南海]구에 위치한 ‘난하이 혼다 자동차부품 제조 유한회사’는 2010 년 5 월 17 일부터 6 월 4 일까지 장기파업에 돌입하였다. 파업의 이유는 크게 임금인상과 초과근무 단축이었다. 혼다의 임금 체계는 약 5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등급마다 다시 15 단계로 나누어져 총 75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셈이다. 가장 낮은 1 등급의 노동자의 경우 임금 체계가 한 단계 오르면 20~30 원 정도 임금이 소폭 오르는 상황이며, 한 등급이 오르려면 약 15 년이 걸린다.⁵³ 이러한 상황에서 2010 년 5 월 1 일 포산시는 노동자 최저임금을 월 770 원(元)에서 920 원(元)으로 조정하였으나 난하이 혼다의 경우 회사측의 각종 편법으로 인해 노동자 수중에 들어오는 임금은 변화가 없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 약 100 여명은 회사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5 월 17 일 하루 동안 파업을 실시하였다.⁵⁴

하지만 5 월 21 일 경 노동자들 사이에 사측에서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며 4~500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하였고 부품 공급의 차질로 인하여 ‘혼다 중국’ 4 곳의 완성차 조립공장까지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서 6 월 1 일까지 총 1900 여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하였다.⁵⁵ 결국 난하이 혼다 파업은 언론의 관심과 지방정부, 대학교수 등의 도움으로 노사양측은 수 차례의 대화를 거쳐서 6 월 4 일 기존임금 1544 원(元)에다 500 원(元)을 추가하는 즉, 35% 임금인상에 양측이 협의하는 것으로 파업은 끝이 났다.⁵⁶

당시 파업을 구상했던 탄귀청[谭国成, 譚國成]은 후난[湖南]성 출신으로 ‘동향 관계’인 샤오샤오[小肖]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둘은 회사를 그만 둘 각오로 파업을 결심하였고 자신의 주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⁵⁷ 이와 같이 혼다 파업사례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민감한 신세대 농민공들이

⁵³ 邱静, 2010, “田罢工显现薪酬体系问题,” 『人力资源』 07, p.68.

⁵⁴ 杨与肖, 2011, “本田罢工门,” 『汽车商业评论』 02, p.71.

⁵⁵ 陈祥丽, 2011, “职工权益自救的逻辑与企业应对之道: 基于南海本田罢工事件的思考,” 『人才资源开发』 09, p.204.

⁵⁶ 颜昌武, 朱泳东, 2010, “本田事件: 中国劳工维权的理性标本,” 『决策』 08, pp.56-57.

⁵⁷ 熊新发, 2011, “从南海本田罢工事件看事后企业的应对策略,” 『中国人力资源开发』 07, p.66.

판시를 기반으로 자치 ‘공동체’를 형성하여 물질적 복지를 달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관리층이 노동조합 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서 판시를 기반으로 한 농민공 자치 공동체는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⁵⁸ 난하이 혼다의 경우에도 파업이 발생했을 당시, 지역노조 간부들이 파업 노동자들의 사진을 찍어서 노동자들이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지역노조 간부들이 파업 참가자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⁵⁹ 이처럼 현재 중국의 노동조합은 신세대 농민공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표 2-2 를 보더라도 신세대 농민공의 노동조합 가입율은 1 세대 농민공보다도 11.4%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농민공의 공회(노동조합) 가입율 단위: (%)

가입현황	신세대 농민공	1 세대 농민공	농민공 전체
가입	44.6	56.0	49.1
미가입	48.2	36.7	43.7
과거 가입, 현재 미가입	0.7	1.0	0.8
정확히 모름	6.5	6.3	6.5
합계	100	100	100.1

출처: 工人日报, (<http://acftu.people.com.cn/GB/67582/13966631.html>, 2012년 3월 20일 검색).

하지만 표 2-2 역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기업 1000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실제로 많은 신세대 농민공이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신세대 농민공의 비율은 더욱 적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팍스콘 사례 역시 신세대 농민공이 노동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팍스콘은 대만계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생산방식의 기업으로 중국 대륙에만 약 80 만명의 노동자가 팍스콘에 근무하며 애플, 삼성, 노키아 등의 상품을 생산하고

⁵⁸ 卢悦, 刘红梅, 2011, “本田零部件公司劳资冲突成因分析,” 『人力资源管理』 07, p.129.

⁵⁹ 왕칸, 2010, “중국노동자의 의식변화와 단체행동: 2010년 자동차산업의 파업 및 그 영향력,” 『한국노동연구원』 pp.10-12.

있다. 2012 년 FLA(Fair Labor Association)에서 팍스콘의 선전[深圳]시 룡화[龙华, 龍華]와 관란[观澜, 觀瀾]단지와 청두[成都]시 공장의 노동자 35000 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임금, 건강·안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팍스콘 노동자들은 2010 년 노동자 연쇄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선, 노동시간의 경우 FLA 에서 정한 표준 노동시간 주 60 시간(초과근무 포함) 근무와 중국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 시간 근무에 초과근무 월 최대 36 시간을 모두 초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는 기간도 있었다. 둘째, 임금의 경우 선전시의 법정 최소임금이 1500 원(元)인데 비해서 팍스콘의 임금은 1800 원(元)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자의 14%는 예정에 없었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초과근무 수당은 30 분 단위로 측정이 되어서 만약 29 분 일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58 분 일할 경우 30 분 일한 만큼의 수당만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1 년 청두 공장에서 알루미늄 먼지로 인한 폭발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측에서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위원회’의 존재나 그 역할을 알지 못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⁶⁰

그리고 팍스콘 역시 혼다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0 년 노동자 연쇄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1736 명의 팍스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40%는 노동조합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⁶¹

이처럼 도시에 나와 열심히 일을 해도 물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신세대 농민공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로는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신세대 농민공의 경우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기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2009 년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단위나 고용주가 신세대 농민공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는 비율은 양로보험 7.6%, 공상(산업재해)보험 21.8%,

⁶⁰ FLA 홈페이지, 2012-03-29,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Apple Supplier, Foxconn Report Highlights. (<http://www.fairlabor.org/>, 2012년 6월 24일 검색).

⁶¹ 中国劳动咨询网 홈페이지, 2010-12-03, 富士康调研总报告系列六：工会何在？. (<http://www.51labour.com/show/160258.html>, 2012년 3월 15일 검색).

의료보험 12.9%, 실업보험 4.1%에 그쳤다. 그리고 신세대 농민공의 사회보험 가입현황 역시 업종별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⁶² 표 2-3 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사회보험 점유율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는데 이처럼 신세대 농민공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2009년 주요산업 신세대 농민공 사회보험 점유율(覆盖率, 覆盖率) 단위:(%)

주요 산업	양로보험	공상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합계
제조업	7.8	26.9	14.5	3.9	53.1
건설업	2.4	16.1	5.2	1.3	25
교통 운수, 창고, 택배업	9.6	25.5	14.9	5.8	55.8
도매, 소매업	6.2	10.1	8.0	3.2	27.5
숙박, 음식업	3.5	11.8	7.0	1.9	24.2
서비스업	4.2	13.7	9.0	2.4	29.3

출처: 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10310_402710032.htm, 2012년 3월 15일 검색).

또 다른 사례로 2010년 전국 총공회(노동조합)의 결과에 따르면 신세대농민공의 양로보험 가입율은 67.7%로 도시 노동자에 비해 23.7% 낮고, 의료보험 가입율은 77.4%로 도시 노동자에 비해 14.6% 낮고, 실업보험 가입율은 55.9%로 도시 노동자에 비해 29.1% 낮고, 공상보험 가입율은 70.3%로 도시 노동자에 비해 9.1% 낮고, 생육(출산)보험 가입율은 30.7%로 도시 노동자보다 30.8% 낮았다. 사회보험비 납부현황 역시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양로보험을 예로 들면 56.5%의 신세대 농민공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⁶³

신세대 농민공의 사회보험 가입율과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과편화'에 있다. 중국의 각 지방마다 유동인구에 대한 사회보험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광둥성에서는 유동인구를 도시 사회보험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동부

⁶² 国家统计局 홈페이지,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10310_402710032.htm, 2012년 3월 15일 검색).

⁶³ 工人日报, (<http://acftu.people.com.cn/GB/67582/13966631.html>, 2012년 3월 15일 검색).

지역의 일부 성에서는 유동인구를 농민 기본보험제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상하이, 칭다오[靑島, 靑島] 같은 지역에서는 독립적인 농민공 사회보장 제도가 존재한다.⁶⁴ 그 결과 유동성이 높은 농민공의 특성상 사회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거주지를 옮길 시에 사회보험 이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을 옮길 때마다 사회보험의 해지와 재가입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지후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⁶⁵

둘째, 사회보험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사회보험 중에서도 기본적인 양로, 의료, 실업보험의 보험료만 납부하더라도 농민공 월급의 11%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노동자의 사회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경영원가가 2~3%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⁶⁶ 실제로 중국 통계국의 2009 년 조사에 따르면 신세대 농민공의 54.4%가 단위나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⁶⁷

셋째, 신세대 농민공이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고용주들은 법을 잘 모르는 농민공의 약점을 이용하여 노동계약 이후에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후에도 사회보험 요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⁶⁸ 따라서 현재 많은 농민공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정보부족, 경제적인 부담, 지역별로 다른 보험규정 때문에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2010 년 10 월 28 일 ‘사회보험법’이 통과되어 201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동인구의 사회보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회보험법의 부칙(附則) 제 95 조에 “도시의 이주노동자인 농촌주민은 본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한 상태이다.⁶⁹ 그리고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경우 사회보험 총괄 지역을 이전할 경우 사회보험도

⁶⁴ 王培安, 2010, “完善流动人口社会保障制度的思考,” 『行政管理改革』 07, p. 26.

⁶⁵ 佟哲, 2010, “我国流动人口社会保障问题浅析,” 『科技创业月刊』 06, pp.111-112.

⁶⁶ 李慧, 2011, “对农民工社会保险问题的几点思考,” 『中国证券期货』 04, p.164.

⁶⁷ 国家统计局 홈페이지,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10310_402710032.htm, 2012 년 3월 15일 검색).

⁶⁸ 王茹, 李亚辉, 2010, “农民工劳动合同中存在的问题及原因分析,” 『乌鲁木齐职业大学学报』 04 p.33.

⁶⁹ 杨卓, 轩杨明, 2011, “社会保险法(草案)之我见,” 『法制与社会』 05, p.49.

함께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회보험 관리감독 및 징수 업무 등은 정작 현(縣, 縣)급 이상의 인민정부로 지정하고 있다. 보험료 이전 문제는 각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 제 64 조에도 “양로보험은 단계적으로 전국일원화를 실현을 목표로 하고 기타 사회보험은 단계적으로 성급일원화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단계는 국무원이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뿐 사회보험 전국 일원화의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상태이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의 이동이 잦고 노동계약의 비율이 낮은 신세대 농민공의 경우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교육·심리적 복지현황

신세대 농민공에게는 사회보험과 같은 물질적인 부분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도시에서의 문화·교육·심리적인 부분의 복지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원하는 것은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득하여 도시인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세대 농민공이 마주한 현실은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누리기보다는 그저 휴식 차원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뿐이다. 2009 년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신세대 농민공의 46.9%가 여가시간에 인터넷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52.1%는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신세대 농민공은 5.5%, 책이나 신문을 본다는 신세대 농민공은 10.1%에 그쳤다. 또 다른 사례로, 2009 년 중국의 한 연해 개방도시(익명)에서 신세대 농민공 423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세대 농민공이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것은 잡자기 59.1%, 라디오 듣기 56.5%, 음악감상 47.04%, 아이쇼핑 36.88%, 포커나 마장[麻将, 麻將] 32.15%, 독서 29.8%, 인터넷 26.4%, TV 시청 13.24% 등 그 내용이 단조롭고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⁰

이와 같이 신세대 농민공의 현실은 이주를 결심할 당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도시에 오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도시의 문화나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⁷⁰ 国虹, 2009, “互动与新生代农民工的文化需求: 以Q市H区为例,” 『消费导刊』 18, pp.161-162.

못한 채, ‘노동’을 통한 생계유지를 중심으로 도시 생활을 연명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열망은 식을 줄 모른다. 2010 년 전국 총공회(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신세대 농민공 중 69.7%는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4.7%는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7.8%는 문화지식의 제고를 희망하였다.⁷¹

따라서 도시에서의 ‘생존’이 아닌 ‘생활’을 원하는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를 이야기 할 때 문화·교육·심리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국가에게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문화적인 측면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의 경우 신세대 농민공의 취업, 주택, 의료문제 등과 같이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만 하는 복지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⁷²

기업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과 신세대 농민공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고 특히 1 세대 농민공에 비해 더욱 유동이 잦은 신세대 농민공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신세대 농민공에게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⁷³ 2009 년 중국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신세대 농민공 중 직업훈련에 참여해 봤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4%뿐이었다.⁷⁴ 그리고 2010 년 전국총회에서 1000 개 기업의 농민공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신세대 농민공 중 어떠한 직업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1%로 1 세대 농민공의 59.1%보다 2%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그 횟수가 매우 적었는데 2~5 회 정도의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신세대 농민공 비율은 44.6%, 6 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5%에 그쳤다.⁷⁵

따라서 국가와 기업의 경우, 현재 당면한 신세대 농민공의 물질적 복지를 개선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복지 주체들만으로는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교육·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복지를 해결하기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교육·심리적인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⁷¹ 韩云鹏, 2010, “新生代农民工教育培训状况及对策思考,” 『职教论坛』 31, p.27.

⁷² 刘瑞芳, 2011, “新生代农民工文化需求保障机制研究,” 『科技情报开发与经济』 29, p.171.

⁷³ 唐蹕, 2010, “新生代农民工教育培训的困境与出路,” 『中国培训』 07, p.51.

⁷⁴ 国家统计局 홈페이지,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10310_402710032.htm, 2012년 4월 5일 검색).

⁷⁵ 工人日报, (<http://acftu.people.com.cn/GB/67582/13966631.html>, 2012년 4월 5일 검색).

무엇보다 문화·교육·심리적인 부분의 복지는 비용과 규모 측면에서 개인적인 상호부조만으로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공동체를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를 이야기 할 때 ‘공동체’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원자화’된 도시 생활에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은 신세대 농민공의 심리적인 복지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신세대 농민공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복지를 중시한다. 하지만 실제로 신세대 농민공은 도시의 제도와 도시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2010년 중국청년일보 사회조사센터에서 전국의 31개 성(省)에 거주하는 신세대 농민공 740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신세대 농민공이 시민이 되는 것에 어려운 점”이라고 밝힌 것은 생활비가 높은 것(61.3%), 도시 주민이 받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54.5%), 주택문제의 어려움(53.9%)에 이어 사회적인 차별(51.5%)이 4위를 차지하였다.⁷⁶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2004~2005년, 우한[武汉, 武漢], 광저우[广州, 廣州), 둥관[东莞, 東莞], 창사[长沙, 長沙]에서 1980년 이후 출생한 신세대 농민공 35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농민공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⁷⁷

“현지(도시) 사람들은 가치관이 외지 사람과 다르다. 그들은 항상 외지인을 알보고 외지인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 광저우 여성 농민공

“도시 사람은 계산적이라서 권력이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다른사람을 무시해서 진짜 친구가 되기 어렵다.” - 우한 여성 농민공

이와 같이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생활한다고 하여도 정작 도시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교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주로 동향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교류하며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에서의 차별과 더불어 신세대 농민공을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외로움이다. 무엇보다

⁷⁶中国青年报, 2010-02-09, 调查称新生代农民工反对社会歧视自称白领.

(http://news.xinhuanet.com/life/2010-02/09/content_12956856.htm, 2012년 4월 15일 검색).

⁷⁷符平, 2006, “青年农民工的城市适应: 实践社会学研究的发现,” 『社会』02, pp.139-149.

결혼 적령기를 지나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하여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이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날로 심해져가고 있다. 2010년 전국 총공회(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신세대 농민공의 20% 정도만이 기혼 상태이며 80% 정도는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신세대 농민공이 결혼 적령기에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도시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것이다.⁷⁸

신세대 농민공의 결혼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로는 첫째, 장시간의 노동으로 자유시간이 부족하여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이다. 둘째, 특정 업종의 경우 남녀의 성비가 맞지 않아 주변에서 이성을 만날 기회 자체가 별로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기 있기 때문에 이성을 만날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 반대로 서비스업이나 의류 산업의 경우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셋째, 낮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농민공의 현실에서 결혼 비용과 결혼 후 도시에서의 주거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넷째, 호구제도의 문제와 유동성이 잦은 농민공의 특성상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하여 신세대 농민공 스스로 결혼에 대해 자격지심을 갖거나 결혼 자체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하여 배우자를 찾는데 적극성이 결여된 경우이다.⁷⁹

한 예로, 2009년 7~8월에 난징[南京], 쑤저우[苏州, 蘇州], 우시[无锡, 無錫], 진장[镇江, 鎮江], 창저우[常州], 난통[南通], 양저우[扬州, 揚州], 타이저우[泰州] 총 8개의 도시에서 신세대 농민공 1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때에 따라서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 하였는데 난징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신세대 농민공은 도시인과의 결혼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칭하이[青海]의 한 농촌에서 왔고, 난징에 온 후 몇 년 동안 고향집에 가지 못하였다. 나는 현재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000원(元) 남짓의 돈을 받는다. 나와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은 우리와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여기(난징)에서 배우자를 찾을 생각이 없고,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우자를 찾을 생각이다.”⁸⁰

⁷⁸ 全国总工会新生代农民工问题课题组, 2010, p.9.

⁷⁹ 李辉, 浦昆华, 2011, “新生代农民工的婚恋心理冲突探析,” 『江西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04, pp.55-58.

⁸⁰ 刘杰杰, 2011, “80后农民工婚恋障碍分析-基于苏州、无锡、南京等8市的调查,” 『南京人口管理

결혼이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지만 도시에서 일하는 신세대 농민공에게는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이방인으로서 소외감을 느끼며 결혼까지 늦어져 외롭게 지내야 하는 신세대 농민공에게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리적인 위안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세대 농민공의 심리적인 문제는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면서 따라오는 소외감과 외로움에서 끝나지 않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동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세대 농민공의 노동현실은 고된 노동과 부족한 자유시간으로 인해 심신을 돌볼 여유가 부족하며 제도적으로도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2010 년 ‘팍스콘 노동자의 연쇄 자살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2010 년 1 월 23 일 선전시 룡화 공장에서 19 세의 팍스콘 노동자가 투신자살한 이후 2010 년 5 월 27 일까지 총 15 명이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3 명을 제외한 12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자살을 시도한 팍스콘 노동자들의 나이는 18 세에서 24 세까지 모두 신세대 농민공이었다.⁸¹ 사측에서는 젊은 노동자들의 자살원인을 젊은 세대의 정신적인 나약함 혹은 끈기와 인내심 부족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였다. 따라서 회사에서 내놓은 해결방식 역시 노동자의 심리문제를 상담해주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였지만 그 후에도 노동자의 투신자살은 연이어 발생하였고 결국에는 기숙사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⁸²

당시 팍스콘 노동자의 자살사건은 중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팍스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각계각층에서 팍스콘의 기업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 교대 체제로 인한 긴 노동시간,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자유시간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임금(주 40 시간 근무, 월 900 원)등이 팍스콘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다.⁸³ 그리고 이와 함께 지적된 것이 바로 판시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의 차단이었다. 팍스콘은 군대식 기업문화로 유명한데 노동자를 하나의 ‘기계’로 간주하여 노동자의 효율적인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干部学院学报』03, pp.67-68.

⁸¹ 徐明天, 徐小妹, 2010, 『富士康真相:还原真实的富士康』(浙江大学出版社), pp.1-10.

⁸² Jenny Chan, Ngai Pun, 2010, “Suicide as Protest for the New Generation of Chinese Migrant Workers: Foxconn, Global Capital, and the State,” *The Asia-Pacific Journal* 37(2/10), p.24.

⁸³ 司洪玉博, 2011, “富士康管理事件行为分析,” 『经济研究导刊』19, pp.101-102.

것을 감시하고 차단하였다. 따라서 노동자는 어디를 가든지 체크카드를 찍어야 했으며 인간관계 역시 차단과 감시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⁸⁴

우선, 동향관계이거나 원래부터 판시가 있는 노동자들은 각각 다른 작업장과 다른 기숙사로 배치하여 교류를 소원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팩스콘은 노동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속한 조직, 예를 들어 동향회, 동창회 등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비공식 조직은 기본적으로 존재 할 수 없었다. 작업장에서도 ‘초’단위로 업무 정확도를 계산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잡담이나 휴식을 할 수 없었다.⁸⁵ 기숙사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기숙사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으로 신세대 농민공이 판시를 형성하기 적합한 장소이다. 하지만 팩스콘에서는 기숙사에서조차 서로의 이름을 모른 채 지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각자 작업장이 다른 사람들을 한 기숙사에 배정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달라 서로 마주칠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⁸⁶ 실제로 팩스콘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의 경우 하루 종일 상점에서 물건 살 때 몇 마디 하는 것 이외에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날도 많다고 전하였다.⁸⁷

그리고 노동자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노동조합에서 심리 상담사를 데려와 강연하는 도중에 강사가 기숙사 룸메이트의 이름을 전부 아는 사람에게 1000 원(元)의 장려금을 준다고 까지 말했음에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에 대답하지 못하였다.⁸⁸ 이와 같이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팩스콘의 노동자 관리 방식은 노동자들을 완전하게 ‘상품화’, ‘원자화’시켰고 인간관계에서 의지하거나 믿을 사람이 없는 구조로 몰아넣었다.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이다.⁸⁹

물론 팩스콘 노동자의 연쇄자살 원인을 단순히 판시의 차단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팩스콘 노동자의 연쇄자살 사건을 이야기 할 때 중국 내부에서도 판시의 차단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듯이 타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신세대 농민공에게 마음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동향회, 동창회 같은 ‘공동체’를

⁸⁴ 白臻, 2011, “从儒家民本思想谈富士康跳楼事件,” 『商品与质量』 S4, p.16.

⁸⁵ 司洪玉博, 2011, pp.101-102

⁸⁶ 张闰丽, 张敏, 2011, “富士康事件后人力资源管理角度的反思,” 『现代商贸工业』 17, p.134.

⁸⁷ 新民周刊, 2010-12-22, 重访富士康:严格军事化管理模式需反思.

(http://news.sina.com.cn/c/sd/2010-12-22/122721687181_2.shtml, 2012년 4월 15일 검색).

⁸⁸ 环球人物杂志, 2010-05-27, 富士康系列跳楼事件凸显农民工的梦想与挣扎.

(<http://news.sina.com.cn/c/sd/2010-05-27/144020357953.shtml>, 2012년 4월 15일 검색).

⁸⁹ 王伟华, 高化田, 2011, “从富士康事件到企业管理,” 『经营管理者』 06, p.81.

통하여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은 그 자체로 심리적 복지가 된다는 것을 역으로 판시가 차단되었던 팍스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처럼 팍스콘 사례는 신세대 농민공이 노동현장에서 물질적 복지뿐 아니라 정신적인 복지 측면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질적 복지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적인 측면의 복지를 중요시하는 신세대 농민공의 경우에 판시가 가진 시장으로부터의 ‘보호장치’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 기업, 시장과 같은 거대 복지주체들이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문화적인 복지에 대해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있는 상황에서 판시를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는 이들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 3 절 소결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실태를 살펴본 결과 이들이 처한 복지현실은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신세대 농민공은 1 세대 농민공에 비해 높은 복지욕구를 갖고 있었다. 더 이상 신세대 농민공에게 ‘도시에서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가치관은 통하지 않았으며 도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문화·교육 서비스와 더불어 심리적인 만족감 역시 누리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신세대 농민공이 원하는 ‘이상’과 이들이 처한 ‘현실’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세대 농민공이 받는 월급으로는 도시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라 도시인처럼 문화·교육·심리적인 측면의 복지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현재 국가, 기업과 같은 거대 복지주체들 역시 신세대 농민공의 ‘물질적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임금 인상’이나 ‘사회보험의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에서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교육·심리적인 복지까지 국가나 기업에게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세대 농민공 개인이나 국가, 기업과 같은 거대 복지주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문화적인 측면의 복지개선을 위해 대안적인 복지주체가 필요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판시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대안적인 복지주체로 선정하였는데 도시에서 차별, 소외, 외로움 등을 겪는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동체’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 3 장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 사례

제 1 절 베이징 ‘노동자의 집’

(1) ‘노동자의 집’ 설립자들의 판시 형성과정

고향과 가족을 떠나 도시에서 ‘원자화’, ‘상품화’ 된 채 살아가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은 혈연, 지연, 업연과 같은 판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시장으로부터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복지를 실현해가고 있다. 신세대 농민공은 그 중에서도 특히 ‘업연’을 잘 활용하고 있다. 업연을 기반으로 농민공이 자치 공동체를 형성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이징시 차오양[朝阳, 朝陽]구 피촌[皮村]에 위치한 ‘노동자의 집’이 있다. 베이징시 5 환과 6 환 사이에 위치한 피촌은 상주인구 천사백 명 정도와 만명 정도의 외래인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피촌에 이렇게 많은 외래인구가 모이게 된 것은 ‘노동자의 집’이 생긴 이후부터이다. ‘노동자의 집’은 2002 년 쑨형[孙恒, 孫恆]과 왕더지[王德志]를 주축으로하여 신세대 농민공들이 함께 세운 농민공 자치단체(사회단체)를 뜻한다.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동자의 집’은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NGO 단체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판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의 집 창단 멤버인 쑨형과 왕더지는 농민공 출신으로서 노동자의 집이 생기기 이전부터 판시가 있던 사이였으며 이 둘의 판시는 노동자의 집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쑨형과 왕더지의 인연은 2002 년 베이징에 있는 ‘여성 노동자의 집’(打工妹之家)에서 처음 시작 되었다. ‘여성 노동자의 집’에서는 몇몇의 사회학자들과 대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주위의 농민공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농민공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거나 게임, 강연회, 작은 공연 등을 진행하였다. 이 곳에서 쑨형은 노래를 부르고 왕더지는 ‘상성’[相聲, 相聲]이라고 하는 중국 전통 만담을 하면서 친구가 되었다. 네이멍구[內蒙古]출신의 왕더지와 허난출신의 쑨형은 비록 고향은 달랐으나 농민공이라는 ‘업연’을 기반으로 판시를 형성해 나갔는데 무엇보다 둘 다 ‘농민공의 정신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사가 비슷하여 금방 친해 질 수 있었다. 그래서 왕더지는

쑨형을 알게 된 해였던 2002 년, 쑨형이 농민공을 위한 단체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했을 때 흔쾌히 동의할 수 있었다.⁹⁰

이처럼 ‘노동자의 집’을 설립한 신세대 농민공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쉽게 판시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에서 ‘농민공’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면서 정작 농민공 개개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 세대 농민공들은 도시로 이주한 후에 주로 ‘동향관계’를 기반으로 판시를 형성 했었지만 복지욕구가 더 높아진 신세대 농민공에게는 이와 더불어 더 큰 규모의 판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에서 신세대 농민공과 판시를 형성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논리로 점철 된 도시에서 신세대 농민공이 판시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농민공’끼리 연대하여 스스로 시장으로부터의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신세대 농민공이 판시를 생존과 복지향상을 위한 도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할 수는 없다. 신세대 농민공은 대부분 농촌 출신으로서 이들은 농촌의 정서와 이주민으로서의 애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거기에다 중국사회에서 ‘농민공’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서로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세대 농민공의 ‘업연’은 단순히 같은 직장 또는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농민공’이라는 범주에 속하면 ‘업연’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확장됨을 의미한다.

지금부터 신세대 농민공에게 왜 판시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필요하며 이러한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생동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 노동자의 집 설립에 큰 역할을 하였던 쑨형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허난성 카이펑[开封, 開封]출신의 쑨형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음악교사로 근무하였는데 반복적인 삶에 회의를 느끼고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일을 그만 두고 1998 년 베이징으로 떠났다. 이때부터 쑨형은 농민공으로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사실 쑨형은 베이징 ‘노동자의 집’ 창립자이기 이전에 중국의 농민공 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인물로서 오늘 날 중국에서 신세대 농민공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주는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1 년 홍콩 평화 TV 의 ‘대중화를 걷다’란 프로그램에서는 피춘에 대해 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 진행자가 직접 피춘을 방문하여 쑨형과 일대일로

⁹⁰ 黄传会, 2011, “皮村——聚焦新生代农民工,” 『北京文学(精彩阅读)』 03, p.50-51.

거리를 걸으며 피촌에 있는 농민공 자녀학교, 농민공 박물관 등을 함께 둘러보며 쑨형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진행자가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대중화를 걷다’에서 실시한 인터뷰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내용이다. 방송 진행자가 쑨형이 처음 베이징으로 오게 된 경유를 묻는 과정에서 쑨형은 베이징에 처음 도착했던 때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98 년) 가방 하나와 300~400 백 원(元)을 갖고 막 베이징역에 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은 흥분되면서도 모순된 것이었다. (베이징에서는) 나를 상관할 사람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분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드는 모순적인 생각은 이 세상에서 나를 상관해줄 사람이 없다는 고독감이었다.”

비단 쑨형뿐 아니라 ‘모순’이라는 감정은 이주민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있는 감정일 것이다. 하지만 신세대 농민공의 경우 도시 생활이 지속 될수록 처음의 기분 좋은 ‘흥분’은 사라지고 ‘모순’만 남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으며 그렇다고 도시인으로서 인정 받기는커녕 농민공의 신분으로 계속 차별만 당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방송 진행자가 쑨형에게 도시 생활의 어려움을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 생각에는 물질상의 고생은 감수할만 한 것 같다. 하지만 가장 힘든 점은 정신적·심리적인 어려움이다. ‘소속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도시에서는 혼자이고 가족도 친구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는…내 생각엔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 부분에서 신세대 농민공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바로 도시 생활에서의 ‘소속감’인 것이다. 비록 이 인터뷰는 쑨형 한 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현재 베이징 ‘노동자의 집’이 많은 신세대 농민공의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신세대 농민공들도 쑨형만큼이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신세대

농민공이 ‘탈상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즉, 인간으로서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도시 사람들의 무관심과 차별 속에서 원자화된 신세대 농민공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판시를 기반으로 하여 스스로를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쑨형이 베이징에서 농민공으로서 살아가며 느끼는 모순과 서러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던 즈음에 쑨형의 음악인생에 영감을 준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몹시 추웠던 베이징의 어느 겨울, 온풍기도 없이 겨울을 나던 쑨형은 석탄 값을 아끼려고 차가운 방에서 지내던 중에 감기에 걸리고 만다. 병이 나니 고향집은 더욱 그리워져 가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석탄을 사러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석탄 가게에서 만난 한 여인에 대해 쑨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허난성 출신으로 고향사람이었고 50~60 세 정도로 우리 부모님 정도 되는 나이였다. 그녀는 얼굴, 손 할 것 없이 몸 전체가 시커맸다. 그녀는 시종 웃는 얼굴로 석탄을 옮기면서 나와 대화를 나누었고 나를 격려해 주는 말을 했다. 본인도 아들이 둘 있는데 모두 나처럼 외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아직 외지에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⁹¹

마음과 몸이 지쳐있을 때 같은 처지에 있는 고향사람이 전한 응원의 말은 쑨형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쑨형은 석탄 파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석탄이란 뜻의 ‘메이’[煤]란 노래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곡은 쑨형이 농민공이 되고 난 후 만든 첫 번째 자작곡이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쑨형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 농민공들이 겪었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농민공의 희로애락을 담은 노래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쑨형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업연을 바탕으로 쑨형 주변의 농민공에게까지 확산되었으며 급기야 2002년 5월 1일에는 쑨형과 뜻을 같이한 농민공들은 ‘노동청년 예술단’(打工青年艺术团, 打工青年藝術團)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⁹¹ 凤凰卫视, 走读大中华, 2011-04-08 방영.

(<http://www.tudou.com/programs/view/-7olnohEziw/?fr=rec1>, 2012년 4월 18일 검색).

따라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에게 고향사람 또는 동향사람이란 같은 성 출신으로서 그 범위가 포괄적이며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어도 충분히 판시 형성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업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농민공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판시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자의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들은 함께 일했던 경험이 없더라도 ‘노동자의 집’에서 만나 판시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2) 문화·교육·심리적 복지 및 물질적 복지의 실현과 새로운 판시 형성

‘노동청년 예술단’은 이후 ‘신노동자 예술단’(新工人艺术团, 新工人藝術團)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신노동자 예술단’은 현재까지 ‘세계 노동자는 한 가정’(天下打工是一家, 2004), ‘노동자를 위한 노래’(为劳动者歌唱, 为劳动者歌唱, 2007), ‘우리의 세계 우리의 꿈’(我们的世界我们的梦想, 我們的世界我們的夢想, 2009), ‘우리의 손으로 들어와’(放进我们的手掌, 放進我們的手掌, 2010), ‘이렇게 하자’(就这么办, 就這麼辦, 2011) 등 총 5 장의 앨범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연극 ‘우리의 세계, 우리의 꿈’(2009), ‘도시의 농촌’(城市的村庄, 城市的村莊, 2010)을 공연하였고, 영화 ‘순조로운 도시입성’(顺利进城, 順利進城 2006), ‘정해진 인생’(命题人生, 2009), 다큐멘터리 ‘피춘’(2007) 등을 제작하는 등 자신들의 색깔을 담은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다.⁹²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은 ‘신노동자 예술단’에서 노래와 음반 제작과 관련해서는 쑨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극과 영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왕더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징 ‘노동자의 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의 집’을 만들때부터 형성되어 있던 판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노동자 예술단’의 다양한 작품 활동 가운데 쑨형이 여러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했던 노래가 있는데 바로 1 집에 수록 된 ‘뽕오거’[彪哥] 이란 곡이다. 이 곡은 쑨형이 애착을 갖고 있는 곡 중 하나인데 함께 건축 일을 하던 ‘뽕오’란 농민공이 “우리는 두 손 밖에 없어서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나면 두 손에 남는 것은

⁹² (<http://www.dashengchang.org.cn/Article/ShowClass.asp?ID=541>, 2012년 4월 19일 검색).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 하는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다.⁹³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당신을 알았을 때, 당신은 매일 13 시간씩 하는 일을 마친 후였고, 모두 당신을 ‘바오거’라고 불렀지. 당신은 이게 형제자매들이 당신을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말했어. 술에 취하고 당신은 집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생활이 유지된다고 말했어. 당신은 매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몹시 힘들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생활이 유지된다고 말했어. 당신은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으면서 예쁜 옷을 걸친 채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야속하다고 말했어. 당신은 도대체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거냐고 말했어. 그들은 잘 몰라, 이 원리를 잘 몰라. 하루, 일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갖는 것은 단지 빈 두 손뿐. 당신은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새벽이 온 후 여전히 힘들게 일해야 해.”⁹⁴

이처럼 ‘신노동자 예술단’은 농민공들이 공감할 만한 가사를 직설적으로 전달하며 노래를 부를 때도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강한 어투로 내지르듯이 부르는데 이것이 신노동자 예술단 음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사말을 보더라도 농민공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노래로 잘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노래들은 노동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들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기에 충분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노동자 예술단은 피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 공장, 학교, 기업, 농민공 자녀학교 등을 직접 찾아 다니며

⁹³ 中国文化传媒有限公司, 2010-11-25, 在这里他们用文化温暖自己.
(http://www.ccdy.cn/xinwen/gongong/201109/t20110926_59904.htm, 2012년 4월 19일 검색).

⁹⁴ “认识你的时候, 已是在你干完每天十三个小时的活儿以后大伙儿都管你彪哥, 你说这是兄弟们对你习惯亲切的叫法。喝醉了酒以后, 你说你很想家, 可是只能拼命地干, 才能维持老小一家安稳的生活。每天起早贪黑, 你说你感到特别的累, 可是只能拼命地干, 才能维持老小一家安稳的生活。你说你最痛恨那些不劳而获的家伙, 他们身上穿着漂亮的衣服, 却总是看不起你。你说究竟是谁养活谁? 他们总是弄不清, 他们总是弄不清这个道理。一天天一年年, 就这样过去。你拥有的只是一双空空的手。你总说也许明天日子就会改变, 可清晨醒来后, 仍得继续拼命地干。”

지금까지 약 20 만명 이상의 신세대 농민공과 그 자녀들에게 문화복지를 제공해왔다.⁹⁵ 현재까지도 신노동자 예술단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2011 년 말부터는 ‘신노동자 예술단 창립 10 주년’을 기념으로 전국순회공연을 다니고 있다. 전국 순회공연은 베이징을 시작으로 선전, 광저우, 시안[西安], 쑤저우, 항저우, 청두, 톈진, 칭다오, 난징, 샤먼[廈門, 厦門], 쿤밍[昆明] 등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처럼 판시에서 기인한 농민공 공동체는 폐쇄적인 형태가 아니라 더 많은 신세대 농민공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기 원하는 열린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노래뿐만이 아니다. 신노동자 예술단은 연극으로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정신문화적인 측면의 복지를 실현해가고 있다. 2009 년 1 월에는 ‘우리의 세계, 우리의 꿈’이라는 연극을 공연했는데 당시 중국사회는 개혁개방 30 주년을 맞아서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자축하고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 연극에서는 농민공의 시선으로 개혁개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여론과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중국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 ‘우리의 세계, 우리의 꿈’의 공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아래 내용은 연극 공연 영상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우선, 영상에서는 연극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중국어 자막과 함께 영어 자막으로 짤막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기를 바라는 것이 느껴졌다. 메시지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혁개방 30 년 중국의 2 억 여 명의 유동 노동자(농민공)는 국가를 위해 큰 공헌을 했다. 2002 년 노동자의 집을 세우고, 2009 년 1 월 1~ 3 일 홍콩 옥스팜(乐施会, 樂施會, Oxfam)의 후원과 노동자의 집, 베이징시 차오양구 피춘 촌위원회가 공동주관하여 ‘제 1 회 노동자문화 예술제’를 진행했다. 충칭[重庆, 重慶], 선전, 샤먼 등 20 여 개의 노동 NGO 와 1000 여명의 노동자와 일반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술제에 참여하고 관람했다.”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고 ‘우리의 세계, 우리의 꿈’ 공연 이 시작되었다. 영상에는 ‘각본’은 ‘다수’라고 자막으로 표기되었는데 이 공연이 농민공 한 사람의 생각이

⁹⁵ 工友之家 홈페이지, 2009-10-18, 新工人艺术团简介.
(<http://www.dashengchang.org.cn/Article/ShowInfo.asp?ID=201>, 2012년 4월 20일 검색).

아니고 예술 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하며 여러 농민공의 생각을 담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공연의 1 부는 연극이라기 보다는 짤막한 콩트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6 명이 평상복 차림으로 등장하여 일렬로 서서 한 명씩 주어진 대사를 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마치 랩과 흡사하게 빠른 리듬으로 대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6 명이 한 목소리를 내었다. 중간중간 의도된 유머가 있어서 관중들이 공감하여 웃기는 하였으나 내용 자체로 놓고 본다면 농민공의 현실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담고 있었다.

연극은 “개혁개방 30 년이다. 어떻게 지내?”라는 대사와 함께 6 명이 관중석으로 양 손을 흔들며 활기차게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개혁개방 30 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우 한 명씩 돌아가며 빠르게 이야기 하였다. 중국 GDP 가 매년 9.7% 이상씩 성장하고, 세계 제 4 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 앞에서 우리(중국)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으며 그 동안 홍콩도 돌아왔고, 마카오도 돌아왔고, 대만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재미나게 이야기했다. 이어서 베이징 올림픽도 성공리에 마쳤고 금메달도 많이 땀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렇다고 배우들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성장과 긍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6 명의 배우들은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식품 안전 문제, 고학력자의 취업난과 같은 중국사회의 어두운 면도 앞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면 항상 “개혁개방 30 년이다!”(改革开放 30 年了, 改革開放 30 年了)로 시작하여 “그러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여전히 힘들다.”(但这么多年来, 我们一直在忍耐, 但這麼多年來, 我們一直在忍耐)로 끝이 났다. 예를 들어, “개혁개방 30 년이다!”로 시작하여 그 동안 중국 사회가 경험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몇 개 나열한 후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힘들다.”로 끝을 맺는다. 이처럼 반복되는 문구들은 어떤 때는 전후 문맥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배우들은 농민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과 상관없이 농민공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가 경험한 ‘사실’들에 대한 평가나 판단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반어법이나 표정, 말투 등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생각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배우들의 대사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전국적으로 농민공 수는 2 억이 넘어. 우리는 사회의 물질적인 발전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농민공 자신의 정신문화도 만들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질문할 수 있어. 문화가 무슨 소용 있느냐라고. 문화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냐 입을 것을 주냐라고. (관중들 웃음) 문화인인척 하지마! (관중들 박수 치며 웃음)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표류하는 가운데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야. 문화는 우리에게 현실을 직면하고 희망을 찾는 힘을 주지. 우리의 문화가 없으면 우리의 역사도 없어. 우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어. (빠른 리듬으로) 우리의 문화는 칼과 같아서 우리를 자괴감으로 빠지게 하는 환각을 잘라버려. 시대는 이미 변했는데 우리 현실은 여전히 비참해.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제대로 분석하고 표현해야 해… (관중들 박수소리)”⁹⁶

공연 영상 속에서 배우들이 농민공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관중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다. 아마도 신세대 농민공은 자신의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현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해 나가고 있는 듯이 보였다. 따라서 신노동자 예술단의 문화는 결코 가볍거나 일시적인 유행으로 번졌다가 사라지는 종류의 것은 아니었다. 예술단에 속한 농민공이나 공연을 관람하는 농민공 모두 노래, 공연과 같은 예술을 대할 때 진지한 자세를 취했으며 그 내용물 역시 자신들만의 시선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노동자 예술단의 문화에는 농민공이 만든 노래와 연극이라는 화제성을 빼더라도 기존의 대중문화와는 다른 참신하고 독특한 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신세대 농민공은 ‘업연’에 기반을 둔 공동체에서 인간으로서 함께 사유하고 삶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을 노래, 연극 등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탈상품화’를 실현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들은 대중문화와는 다른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관객들 역시 신노동자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정신문화측면의 복지실현과 함께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의 집’은 많은 신세대 농민공이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새로운 판시를 형성하여 정신문화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세계, 우리의 꿈’ 공연의 마지막에는 배우들이

⁹⁶ (<http://video.sina.com.cn/v/b/32140313-1259331231.html>, 2012년 4월 20일 검색).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오락활동을 주관하고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하여 신세대 농민공은 외로운 도시 생활에서 새로운 판시를 형성해 나가며 외로움을 극복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절, 국경절과 같이 중국의 대표적인 공휴일에 도시인들은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거나 문화생활을 하는데 반해, 농민공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된 문화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노동자의 집’에서는 신세대 농민공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시에 기반을 둔 농민공 자치 예술 공동체를 토대로 2002년 11월에 ‘노동자의 집’이 탄생하게 되었다.⁹⁹ 2011년 중국 ‘당대 예술과 투자’란 잡지사의 기자가 피춘을 방문하여 쑨형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들이 왜 ‘노동자의 집’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아래는 쑨형과의 인터뷰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노동자의 집이 생기고 가장 중요한 일은 피춘에 문화교육단체를 세우는 것이었다. 피춘에는 농민공 자녀학교와 박물관이 있는데, 학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공간이고 박물관은 성인의 문화교육 활동을 위한 것이다. 만약 저 2개의 기반이 없다고 상상해보자. 베이징에는 피춘같이 농민공이 모여사는 마을이 많다. 현지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는 현지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외지인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외래 인구가 많은데도 우리는 자기 조직이 없어서 효율적인 지역 공동체를 만들 방법이 없는 것이다. 모두 함께 모여 살지만 서로 교류가 없고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피춘에는 문화교육 단체가 있어서 함께 단결하여 사회자원을 쟁취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우리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은 모두 사회에서 방치했던 자원들을 모은 것이고, 이 곳의 물품과 시설들은 대부분 주운 것이다…피춘에는 갈수록 많은 바링허우, 쥬링허우[九零后, 九零後]의 신세대 농민공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 세대들은 사회교류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 외지에서 온 젊은이들이 이러한 사회교류의 기회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만약 문화활동 단체가 없다면 외지에서 온 많은 젊은이들은 퇴근 후에 길거리를 배회할 뿐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아니면 어둑어둑한 PC 방이나 술집에 가는 것이 전부이다. 피춘에서 우리는 모두에게 건강한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젊은이들의 생활이 개선되는

것을 바란다…피촌 문화활동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노동자에게 ‘집’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우리는 집이 있고, 형제자매, 부모님, 동창, 고향의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지만 도시에는 우리의 조직이 없고 우리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만약 학교가 없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다. 만약 이러한 활동센터가 없고 도서관과 영화관이 없다면 우리는 책을 읽고 싶거나 영화를 보고 싶을 때 갈 곳이 없다. 예술단이 없다면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노래를 부를 곳이 없다. ‘노동자의 집’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종의 사회지지 네트워크의 기반이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집을 통하여 사회자원을 동원하여 모두 힘을 모아 서로 돕고 서로 지지할 수 있게 된다.”¹⁰⁰

위의 인터뷰를 통하여 쑨형을 비롯한 신세대 농민공들이 정확한 목표를 갖고 ‘노동자의 집’을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꿈을 가지고 도시로 왔지만 정작 현실은 일만하며 짧은 시절을 보내야 하는 일상속에서 점점 외로워져만 가는 신세대 농민공들이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집’에서 추구하는 각종 공동체 활동은 단순히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수준 향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사회교류가 단절되어있던 신세대 농민공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롭게 형성된 판시를 바탕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화·심리적인 복지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집’에서는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심리적인 복지뿐 아니라 교육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2010년 건립된 ‘동심창업훈련센터’(同心创业培训中心, 同心創業培訓中心)가 그것이다. ‘동심창업훈련센터’는 노동자의 집과 중국인민대학의 향촌건설센터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신세대 농민공에게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심창업훈련센터’에서 실시하고 교육은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복지 실현 및 권리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기술적인 교육 역시 컴퓨터, 영상과 같이 기계를 통하여 문화를 만들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의 집’의 문화와 교육복지 프로그램들은 일관성

¹⁰⁰ 李佳, 阿灯, 2011, “从皮村开始关于打工文化艺术博物馆,” 『当代艺术与投资』 06, p.88-89.

있게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심창업훈련센터’는 신세대 농민공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새롭게 판시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었다.

동심창업훈련센터에서 함께 교육을 받은 농민공들은 교육 기간동안 새롭게 판시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예를 들어 수강생들이 함께 여행을 가거나 사회교류를 하면서 외로운 도시 생활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또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10 일 정도의 ‘전일제 반(半)군사화 관리’ 훈련을 받는 다는 것이다. 자유분방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바링허우 세대인 신세대 농민공과 군사훈련은 다소 거리가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만큼 노동자의 집에서 ‘공동체 의식’을 중요히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심창업훈련센터의 수강을 마친 학생들의 글을 살펴보면 이들이 동심창업훈련센터에서 단순히 지식만을 쌓은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새롭게 판시를 형성하여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동심창업훈련’센터를 수료한 한 몇몇 학생들의 글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제목: 그 날들 동안 (在那些日子里)>

“학교의 오락거리는 풍부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농구를 할 때면 선생님과 학생, 남녀가 함께 했는데 어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에게 세게 잡혀서 온 몸에 상처와 손톱 자국이 남았다. 남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 여자들은 누가 너희보고 옷을 벗으라고 한적이 있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서 농구 경기는 더 재미있어졌다.”¹⁰¹

<제목: 베이징에서 공부한 나날들(在北京学习的日子, 在北京學習的日子)>

“5 월 5 일 우리는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군사훈련, 나는 왜 군사훈련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군사훈련의 의의가 뭐지? 게다가 (군사훈련은) 내가 예전처럼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게으르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숙소의 시설도 짜증스러웠고 이전의

¹⁰¹ 工友之家 홈페이지, 2011-02-25, 在那些日子里.
(<http://www.dashengchang.org.cn/Article/ShowInfo.asp?ID=336>, 2012년 5월 5일 검색).

생활습관을 바꿔야만 했다. 나는 단지 공부를 하러 왔을 뿐인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목욕이었다. 더운 여름날에도 교관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목욕을 할 수 없었고 3 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목욕을 할 수 있었다. (중간 생략) 10 일의 군사훈련은 빨리 지나갔다. 10 일 동안 나는 힘들었고, 병도 났었고, 원망도 했었고, 짜증도 났었다. 하지만 우리 교관이 우리와 같이 태양 아래에서 훈련을 받으며 팔꿈치가 벗겨진 채로(우리는 긴 티셔츠, 교관은 짧은 티셔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나는 약간 창피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난 정말 못됐었던 것 같다! 여기에서 귀여운 교관님한테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다! 개학식이 끝난 후에 군사 훈련의 의의를 알게 되었다. 하하, 난 참 둔한 것 같다.”¹⁰²

<제목: 미래는 앞을 향하여 (未来在前方, 未來在前方)>

“낮선 도시에서, 걷다가 멈추고 걷다가 멈춘다. 나는 방향을 잡을 수 없고 이 도시에는 유혹과 고난이 가득하다. 다른 이의 세계, 나의 꿈. 나의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나. 길을 걷을 때면 외로운데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나는 이 세계에 내가 속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가 속할 세계를 찾고 있다. 나는 멍하고, 나는 방황하고, 우리의 출구는 어느 방향인지, 다시 또 갈림길에 서서 미래의 방향을 선택한다. 나는 외롭고, 나는 굳세고, 나는 나의 미래가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여기에서 나는 동료들을 찾았고, 세계의 아름다운 방향도 찾았다. 결국, 세계의 암흑과 압박은 점점 사라진다. 너와 내가 세계를 바꾸면 더 아름다워 질 것이다. 아…… 나의 세계, 아…… 나의 꿈”¹⁰³

수료생들이 남긴 메시지를 살펴보면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느끼는 빈민과 고뇌를 알 수 있으며 ‘동심창업훈련센터’에서 제공한 교육을 통하여 인생 가치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심창업훈련센터’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친구들, 선생님들과 정을 나누고 판시를 형성한 시간들 역시 매우 소중하게

¹⁰² 工友之家 홈페이지, 2011-02-26, 在北京学习的日子.

(<http://www.dashengchang.org.cn/Article/ShowInfo.asp?ID=337>, 2012년 5월 7일 검색).

¹⁰³ 工友之家 홈페이지, 2011-02-27, 未来在前方.

(<http://www.dashengchang.org.cn/Article/ShowInfo.asp?ID=339>, 2012년 5월 7일 검색).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시를 기반으로 형성된 ‘노동자의 집’에서 운영하는 여러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문화·심리·교육측면의 복지를 달성하는 것과 더불어 도시에서 사회교류가 단절되었던 신세대 농민공들이 새롭게 판시를 형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노동자의 집’이 농민공의 문화·교육·심리적 복지 측면에 도움을 주는 것을 위주로 살펴봤는데 ‘노동자의 집’은 신세대 농민공에게 물질적인 복지 또한 제공하고 있었다. 첫째, ‘동심호혜상점’(同心互惠商店)이 있다. 동심호혜상점은 한국의 ‘아름다운 가게’와 유사한데 중고 물품이나 기증받은 물품들을 재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공에게 판매하는 형식이다. 호혜상점에 기증할 수 있는 물품들은 옷, 신발, 침구용품, 가구, 가전, 서적, 장난감, 화장품, 의료용품, 운동용품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거의 총망라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혜상점에서 생기는 수익은 ‘노동자의 집’ 운영과 농민공 자녀학교나 농민공 단체를 돕는데 쓰이고 있으며 상주 직원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운영을 돕고 있다.¹⁰⁴ 이 부분에서 ‘노동자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공동체들의 상호교류 및 상호부조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혜상점은 도시의 비싼 물가를 견디기 힘든 농민공에게 저가로 생활용품을 제공하여 이들의 물질적 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도 기여하고 있어서 중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피춘 말고도 동야오[东窑, 東窑], 리거좡[黎各庄, 黎各莊] 등 베이징의 다른 지역에도 분점을 갖고 있으며 호혜상점을 후원하는 자원봉사자나 기업이 점차 늘어나서 현재는 약 200 여명에 달하고 있다.¹⁰⁵ 그 중에는 한국기업도 찾아 볼 수 있었는데 2011 년 LG 전자 중국은 호혜상점과 공동으로 후원행사를 열어서 총 32 명의 사람들이 옷, 서적, 신발, 가방, 휴대폰 등을 기부한 일도 있었다.¹⁰⁶

둘째, ‘동심여공합작사’가 있다. 이 곳에서는 여성 농민공들을 직접 고용하여 헌 옷을 새 옷같이 수선한 후에 피춘과 피춘 주변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의 집’에서는 여성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에 각별히 신경 쓰고

¹⁰⁴ 新华网, 2011-03-30, 二手公益商店: 以更有尊严的方式帮助低收入者. (http://news.xinhuanet.com/society/2011-03/30/c_121248915.htm, 2012년 5월 8일 검색).

¹⁰⁵ 同心互惠社会企业 홈페이지, 2012-05-07, 同心互惠上门接收服务紧急告知. (<http://www.tongxinhuhui.org/Item/Show.asp?m=1&d=325>, 2012년 5월 10일 검색).

¹⁰⁶ 同心互惠社会企业 홈페이지, 2011-11-22, 同心互惠与LG(中国)合作建立募捐点活动纪实. (<http://www.tongxinhuhui.org/Item/Show.asp?m=1&d=265>, 2012년 5월 10일 검색).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노동자 협조센터’라는 곳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신세대 농민공이 궁금해 하는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과 법적 절차를 알려주고 있었다.¹⁰⁷

이와 같이 베이징 ‘노동자의 집’은 신세대 농민공 개인이나 국가, 기업과 같은 거대 복지주체들이 미처 신경써주고 있지 못하는 정신문화적인 측면의 복지를 스스로 실현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물질적 복지 역시 실현하고 있었다.

(3) 대안적인 복지주체로서의 가능성 탐색

현재 노동자의 집에서는 앞에서 등장한 ‘신노동자 예술단’과 ‘동심창업훈련센터’ 등 이외에도 ‘동심실험초등학교’(同心实验小学, 同心實驗小學), ‘노동자 문화예술 박물관’(打工文化艺术博物馆, 打工文化藝術博物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자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 공동체는 그럴듯한 이름을 갖고 실제로도 다양한 문화,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집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부분은 기업, 지방정부와 연계를 맺고 이들로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받거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 등의 유연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 옥스팜의 도움으로 ‘노동자 문화예술 박물관’을 세우고 구(區, 區)정부의 지지로 ‘노동자 도서관’과 ‘신노동자 극장’ 등을 건립하였다.¹⁰⁸ 이러한 성취들은 신세대 농민공이 ‘원자화’되어 있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물이며 신세대 농민공이 판시에 기반한 ‘공동체’로 존재해서 가능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세대 농민공이 ‘공동체’로 존재하다 보니 이들의 존재감과 목소리가 더욱 커져서 국가, 기업과 같은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신세대 농민공이 복지향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판시가 다른 복지주체들과 잘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판시가 대안적인 복지주체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¹⁰⁷ 黄传会, 2011, p.59.

¹⁰⁸ 王锡苓, 汪舒, 苑婧, 2011, “农民工的自我赋权与影响:以北京朝阳区皮村为个案,” 『现代传播(中国传媒大学学报)』 10, p.21.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있는 다양한 문화시설 중에서도 ‘노동자의 집’에서 각별히 애정을 쏟는 곳은 바로 ‘노동자 문화예술 박물관’이다. 2008년 5월 1일 정식 설립된 ‘노동자 문화예술 박물관’은 중국이 도시화와 공업화를 겪는 과정에서 몇 억에 달하는 농민공이 사회를 위해 큰 공헌을 하였지만 주류의 문화역사에서 농민공의 문화 역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설립되었다. 이 박물관은 ‘종합 전시실’, ‘여성 농민공 전시실’, ‘아동 전시실’, ‘공익단체 전시실’, ‘실물 전시실’ 총 5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¹⁰⁹

시통화나[世通华纳, 世通华纳] 방송사의 ‘태양아래 사랑’(爱在阳光下, 爱在陽光下)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2011년 ‘노동자 문화예술 박물관’에 대해 방영하였는데 이 영상에서는 쑨형이 박물관 전시실에 대해 직접 소개하고 있었다. 종합 전시실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농민공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 연대순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농민공이 기증한 임시 거주증(暫住证, 暫住證)도 보였으며 특히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들의 웃는 얼굴을 클로즈업 하여 찍은 사진들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른 한편에는 2003년 임시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서 수용소에 잡혀 있다가 사망한 ‘쑨즈강[孙志刚, 孫志剛] 사건’, 2010년 발생한 ‘혼다 자동차 노동자 파업 사건’과 ‘팍스콘 노동자의 연쇄자살 사건’에 대한 기록들도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여성 농민공 전시실’에는 수백 명의 젊은 여성 농민공이 재봉틀에 앉아 일하는 흑백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여성 농민공이 직접 쓴 일기와 실제 작업현장에서 사용했던 실, 가위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대학까지 졸업한 한 여성 농민공의 졸업증도 보였다. ‘아동 전시실’에는 농민공 자녀학교의 졸업식 사진과 아이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사진 속의 주인공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었다. 이 외에도 한 농민공 학교의 교사가 허름한 건물에서 칠판만 달랑 걸어둔 채 수업을 하는 사진, 운동회를 하는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동심실험학교’의 건설과정을 담은 사진도 보였다. 그리고 농민공 자녀들을 위해 만든 노래인 ‘노동자 자녀의 노래’(打工子弟之歌), ‘마음속의 말’(心里话, 心里話) 등의 가사가 보였고, 농민공 자녀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광고, 베이징시에서 보낸 농민공 자녀학교 운영 허가증도 보였다. 그리고 영상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¹⁰⁹ (<http://www.dagongwenhua.org.cn/>, 2012년 4월 25일 검색).

도시 아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녀도 농민공 자녀라는 이유로 다른 교복을 입어야 했던 사연을 쑨형이 직접 소개하며 농민공 자녀들이 입었던 교복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도시의 농민공 자녀들은 어린시절부터 차별과 소외를 겪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교복들은 전부 농민공들이 직접 기증한 물품들이었으며 박물관이 비록 외부단체로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농민공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건립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¹¹⁰

‘공익단체 전시실’에는 중국 전역의 약 20 개에 달하는 농민공 NGO 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농민공 NGO 들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실물 전시실’에는 농민공이 직접 입었던 작업복, 살림살이 등을 전시해 놓았는데 농민공의 소박하고 고단했던 삶을 짐작 할 수 있었다.¹¹¹ 박물관에는 약 2 천 여 개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였는데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농민공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알리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 문화예술 박물관’ 홈페이지에는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전시실에 남긴 메시지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농민공들이 직접 남긴 글귀도 종종 눈에 띄었다. 다음은 농민공이 메시지의 일부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평소 나도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었다. 오늘 전시실의 사진들을 보니,, 형제자매들의 진짜 생활을 보니, 마음이 시렸다.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류하이옌(刘海燕, 劉海燕)”

“오늘은 노동절이다. 동시에 ‘신노동자 예술단’ 7 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당신들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 당신들이 더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사회가 우리에게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한다.”¹¹²

¹¹⁰ 世通华纳, 爱在阳光下, 2011-10-21 방영.

(http://v.youku.com/v_show/id_XMzE0Njk5Mzg0.html, 2012년 4월 25일 검색).

¹¹¹ (<http://www.dagongwenhua.org.cn/>, 2012년 4월 25일 검색).

¹¹² 打工文化艺术博物馆 홈페이지, 2011-06-22, 生活工作实物展厅.

(<http://www.dagongwenhua.org.cn/html/plbd/199.html>, 2012년 4월 25일 검색).

“나는 농민공이다, 미래에도 역시 농민공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니, 우리는 더욱 단결해서 우리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판청편(盘成芬, 盤成芬)”

“일을 한지 30 년째, 순탄하지 않았던 인생, 자본 정책 대중의 목소리로 개선한다.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고, 더욱 단결하여 우리 농민공의 현실개선을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기를 희망한다. 우리 노동자들이 같은 직종에서 같은 임금을 받고, 권익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분투하자!”¹¹³

“생활은 항상 이렇다. 우리는 더욱 참고 견뎌야 한다. 어쩌면 우리의 거역할 수 없는 역사가 무력감과 애통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세계에는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우리는 겹질을 깨고 나오는 나비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 많은 동료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자매들(여자 농민공)들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 - 하이샤(海霞)¹¹⁴

“익숙하고 낯선 전시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고 있으니 노동자의 아픔과 어찌할 바 없음이 드러났다. 언제 이 사회에서 노동자를 하늘처럼 떠받치고 우리 노동자들이 더 강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자신의 자질을 향상하고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강해지자! 노동자 박물관이 갈수록 잘 되길 바라며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길 희망한다. 파이팅, 노동자들! -보통 농민공”

“이곳의 역사는 함께 해온, 웃음, 눈물, 슬픔, 기쁨을 보여준다. 우리(미래)는 더 밝을 것을 보았다. 세계의 노동자는 한 가정! 우리의 생활이 축적되게 하자! 우리의 목소리가 없으면 우리의 역사도 없고,

¹¹³ 打工文化艺术博物馆 홈페이지, 2011-06-22, NGO展厅留言.

(<http://www.dagongwenhua.org.cn/html/plbd/198.html>, 2012년 4월 25일 검색).

¹¹⁴ 打工文化艺术博物馆 홈페이지, 2011-06-09, 打工文化博物馆第二展厅女工展厅参观留言.

(<http://www.dagongwenhua.org.cn/html/plbd/183.html>, 2012년 5월 1일 검색).

우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함께 노력하자!-
판청편(盤成芬, 盤成芬)”¹¹⁵

박물관을 다녀 간 농민공들의 후기를 읽기 전에는 ‘과연 박물관이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농민공들의 소감을 살펴보니 사회의 인정과 존중을 원하는 신세대 농민공들이 박물관을 통하여 누군가가 자신들의 삶을 ‘기억’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 해준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시품들을 통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고 현재에도 많으며 자기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고 많은 농민공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 역시 신세대 농민공에게 심리적인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축적한 30년 동안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대면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서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에게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박물관은 농민공 이외에도 여러 학교에서 견학을 오거나 일반인들도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동자 문화예술 박물관’이 중국 사회에 농민공의 역사와 현실을 알리고 이들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농민공의 역사와 실상을 사회에 알리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중국사회와 정부가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 문화예술 박물관’ 이외에도 노동자의 집이 주관하고 다른 공동체의 경제적인 후원을 받는 공동체로는 농민공자녀 학교인 ‘동심실험초등학교’가 있다. 부모와 함께 도시에 거주하는 신세대 농민공의 자녀들에게는 공교육의 시작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부터 결코 순탄치 않다. 물론 중국에도 의무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호구 소재지의 지방정부가 의무교육 비용을 관리하고 있어서 호구 소재지에서만 의무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농촌 호구를 갖고 있는 농민공 자녀의 경우 도시에서 공립학교를 다니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¹¹⁶

¹¹⁵ 打工文化艺术博物馆 홈페이지, 2011-05-18, 打工文化博物馆第一展厅流动的历史参观留言. (<http://www.dagongwenhua.org.cn/html/plbd/177.html>, 2012년 5월 1일 검색).

¹¹⁶ 蒋园园, 2011, “民工子女教育政策执行复杂性多维度分析,” 『中国教育学刊』 08, p.9.

그렇다고 농민공 자녀를 다시 농촌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시에서 일하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농촌에 남겨져 있는 아동(留守兒童, 留守兒童)들은 유년시절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중국사회에서도 농촌에 남겨진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¹¹⁷ 따라서 농민공 자녀의 경우 삭막한 도시 생활이라고 해도 부모와 함께 사는 편이 더 나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신세대 농민공 역시 자식들에게 도시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바램이 있어 점차 많은 농촌 아이들이 도시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다.¹¹⁸ 하지만 농촌 아이들이 도시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한다고 해서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세대 농민공은 주로 노동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¹¹⁹

따라서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도시의 농민공 자녀에게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장소가 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의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이다. 이처럼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가 중국의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상하이와 같은 도시에서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상하이시는 2008 년 60 개의 농민공 자녀학교를 개조하고 전일제 공립학교에 농민공 자녀의 비율을 60%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민공 자녀도 무료로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36.9 억 원(元)의 재정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2010 년 상하이에서 무료 의무교육 혜택을 받는 농민공 자녀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97.3%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¹²⁰

하지만 베이징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현재까지도 베이징 농민공의 자녀가 공립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요구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농민공 자녀의 공립학교 취학 비율은 3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¹¹⁷ 吕锐, 2010, “外来民工子女教育问题与对策,” 『教育科研论坛』 04, p.84.

¹¹⁸ 이민자, 2008, “중국 도시의 농민공 자녀교육: 국가와 민공 자녀학교의 갈등과 타협,” 『동아연구』 55, p. 123.

¹¹⁹ 刘岳后, 郑勇, 杜萍, 2009, “苏北外来民工子女教育现状的调查研究,” 『江苏教育研究』 04, p.60.

¹²⁰ 钱扑, 李明丽, 2010, “推进教育公平的改革举措——上海民工子女教育政策演变剖析,” 『教育研究与实验』 06, p.52.

따라서 베이징 ‘노동자의 집’에서는 ‘신노동자 예술단’이 발매한 음반의 인세 7 만 5 천 원(元)으로 2005 년 자신들이 직접 ‘동심실험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부분에서 ‘노동자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공동체들의 상호교류 및 상호부조가 활발한 것을 재차 알 수 있다. ‘동심실험학교’에는 3 세부터 11 세의 아동들이 다니는데 저녁까지 학교 문은 열려있다. 부모가 모두 일하러 나간 농민공 자녀의 경우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학교에 남아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기 때문이다.¹²¹ 평항 TV 에서 피춘을 방문했을 당시 동심실험학교도 방문하였는데 쑨형은 동심실험학교를 설립할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언론에서 우리가 학교를 짓는다는 소식을 보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내 기억에는 당시 헤이룽장[黑龙江, 黑龍江]성 같은 외지, 매우 먼 곳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왔었다. 우리는 붕괴 위험이 있었던 건물을 허물었고 여학생들도 더운 여름날 우리의 일을 함께 거들었다. 매일 매일이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매일 저녁이 되면 항상 즐거웠다. 저녁이면 다같이 모여서 내일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함께 토론하고, 노래도 부르고 친목을 다졌다. 낮에는 무더위 속에서 학교를 지었고... 당시에 참 즐거웠다.”¹²²

동심실험학교를 건축할 당시를 회상하는 쑨형의 눈빛은 반짝거렸고 손동작을 사용하고 몸을 움직여가며 말하는 쑨형의 모습에서 당시의 상황을 듣는 이에게 잘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다. 쑨형은 인터뷰에서 힘들다는 말과 즐거웠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시종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을 한 것을 보면 학교를 짓는 일이 매우 즐거웠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동심실험학교를 건축할 당시 전국에서 100 여명의 대학생과 농민공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한달 반 동안 학교 건물을 함께 지었다.¹²³

¹²¹ 刘忱, 2010, “关注“打工文化”的力量——以“工友之家”为例,” 『中国党政干部论坛』 09, p.24.

¹²² 凤凰卫视, (<http://www.tudou.com/programs/view/-7olnohEziw/?fr=rec1>, 2012년 4월 18일 검색).

¹²³ 工友之家 홈페이지, 2011-03-29, 同心实验学校介绍.

(<http://www.dashengchang.org.cn/Article/ShowInfo.asp?ID=456>, 2012년 5월 1일 검색).

‘동심실험학교’ 사례는 ‘신노동자 예술단’이라는 농민공 공동체가 학교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일조한 경우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신세대 농민공이 판시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면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또 다른 농민공 공동체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런식으로 다양한 농민공 공동체가 형성되다 보니 복지혜택을 받는 농민공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게 되고 결국 다음 세대인 농민공의 자녀들까지 교육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집’은 신세대 농민공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규모와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실천할 수 없는 문화·교육 방면의 복지를 ‘노동자의 집’ 소속으로 있는 내부 공동체들의 상호부조와 함께 기업, 지방정부, NGO 단체 등과 같은 외부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동심실험학교’는 2011 년 까지 미취학 아동반과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9 개의 학년, 16 개의 반이 있고 약 670 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¹²⁴ 교문을 들어오면 학교 건물 한 쪽에 동심실험학교를 후원하고 있는 기업이나 학교의 팻말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중국 인민대학의 팻말도 걸려있었으며 대학생들은 자원봉사를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¹²⁵ 이 밖에도 동심실험학교의 기능은 다양한데 낮에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농민공의 직업 훈련반이 개설되고 있다. 그리고 공휴일 없이 일하는 신세대 농민공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¹²⁶

특히 미취학 아동반의 경우 학교보다는 유치원의 기능에 더 가까운데 식사 때가 되면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어린이 집의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일일이 보살피고 있다. 신세대 농민공의 직업적인 특성상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심실험학교의 아이들 중에는 새벽 5 시에 등교하여 저녁 8 시 정도까지 학교에 머무는 아이들도 있다. 평항 TV 의 ‘대중화를 걷다’에 등장한 동심실험학교 교장 선진화[沈金花] 는 미취학 아동반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는데 그녀는 아이들의 놀이기구가 낙후되고 바닥이 미끄러워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동심실험학교는 도시에서 외면하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의 자녀들에게

¹²⁴ 同心实验学校 홈페이지, 211-04-10, 学校介绍.

(<http://www.tongxinedu.org/Item/Show.asp?m=1&d=6>, 2012년 5월 1일 검색).

¹²⁵ 工友之家 홈페이지, 2011-03-29, 同心实验学校的变迁.

(<http://www.dashengchang.org.cn/Article/ShowInfo.asp?ID=468>, 212년 5월 2일 검색).

¹²⁶ 刘忱, 2010, p.24.

교육과 양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화 역시 왕더지와 마찬가지로 동심실험학교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쑨형과 판시가 있던 사이였는데 선진화는 베이징 중화여자대학 재학 당시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쑨형을 알게 되었고 쑨형의 가치관에 공감을 하여 대학졸업 후 동심실험학교로 오게 되었다.¹²⁷ 이처럼 노동자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공동체의 운영자들은 판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신세대 농민공 자녀의 교육복지에 도움을 주는 동심실험학교는 베이징의 도시재개발 정책에 따른 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베이징시는 2011년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재개발을 위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곳에는 24개의 농민공 자녀학교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 다니고 있는 약 만 사천 여명의 농민공 자녀들은 하루 아침에 다니던 학교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다.¹²⁸ 그나마 운이 좋게 베이징에서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게 된 농민공의 경우에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립학교가 농민공 자녀학교에 비해 교사의 수준이 높고 체계가 잡혀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비용이 비싸고 아이들을 저녁까지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있어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¹²⁹ 따라서 동심실험학교 사례는 국가와 시장이라는 거대한 복지 주체로는 미처 해결할 수 없는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를 판시에 기반한 공동체가 기업의 후원,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해결했던 복지혼합의 바람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의 논리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동자의 집’에서는 신세대 농민공 자녀의 문화·교육·심리적 복지를 위하여 매년 ‘신시민 아동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농민공 자녀의 목소리’(流动的心声, 流动的心聲)라는 테마로 올해 4회째를 맞고 있다. 2012년 ‘아동문화 예술제’에서는 물물교환 시장, 아동영화 상영, 아이들의 그림 전시회와 연극 공연,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임, 장기자랑 시간, 수공예 체험시간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 행사에도 베이징시 지원자 연합회, 청소년 발전연구센터

¹²⁷ 凤凰卫视, (<http://www.tudou.com/programs/view/-7olnohEziw/?fr=rec1>, 2012년 4월 18일 검색).

¹²⁸ 中国青年报, 2012-02-10, 媒体调查北京农民工子弟学校关停后学生去向. (<http://news.qq.com/a/20120210/000105.htm>, 2012년 5월 2일 검색).

¹²⁹ 中国青年报, 2012-02-10, 北京农民工子女就学生态: 2012年他们在哪里上学?. (<http://www.cssn.cn/news/454234.htm>, 2012년 5월 2일 검색).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후원이 있었다.¹³⁰ 따라서 ‘아동문화 예술제’는 부모가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휴일이 없어서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신세대 농민공의 자녀들의 문화·교육측면의 복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세대 농민공의 자녀들은 부모세대와 마찬가지로 문화·교육측면의 복지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살아 온 도시에서 차별을 겪으며 심리적인 복지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이신성덴’(爱心盛典, 愛心盛典)이란 TV 프로그램에 동심실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쑨형이 함께 출현한 적이 있는데 방송국에서 직접 학교로 찾아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베이징의 너희 집이니?” 라고 묻자 여러 아이들이 모두 “그렇다. 베이징은 내 집이다.”라고 해맑게 말하였다.¹³¹ 어릴 때부터 베이징에서 자라거나 심지어 베이징에서 태어나 베이징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농민공 자녀들은 호구제도로 인해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복지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집에서 발간하는 ‘농민공 자녀의 목소리’에 실린 한 아이의 글에서도 농민공 자녀들이 베이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목: 나는 고향을 사랑하고 베이징을 더 사랑한다.(我爱我家更爱北京, 我愛家鄉更愛北京)- 송자리(宋佳莉)>

“내 고향은 허베이[河北]성의 작은 마을이다. 그 곳에는 넓은 시멘트 대로가 있다. 비록 농촌이지만 슈퍼마켓도 있고, 도매시장도 있고, 야채시장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어서 이 곳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논밭인데 지금은 보리밭으로 변했지만 논밭 가장자리에 서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든다. 집집마다 높은 나무 집을 짓고 닭, 오리, 거위, 돼지, 개를 키우고 어떤 노인들은 양떼를 키운다. 내가 쓴 것을 보면 당신은 아마 내 고향은 무릉도원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조주교(趙州橋, 趙州梁)는 바로 내 고향에 있는데 시간이 있을 때 가서 보기 바란다. 내 고향은 비록 아름답지만 베이징은 대도시의 또 다른 전경이 있다. 길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동차가 있고, 사람들은 길을 건너고,

¹³⁰ 工友之家 홈페이지, 2012-05-27, 第四届新公民儿童文化艺术节活动纪实.

(<http://www.dashengchang.org.cn/Article/ShowInfo.asp?ID=863>, 2012년 5월 4일 검색).

¹³¹ (http://v.youku.com/v_show/id_XMTeyMTc4NzA4.html, 2012년 5월 4일 검색).

육교가 있고, 지하도가 있다. 각종 시장에는 없는 것이 없고, 각종 교통수단은 편리하고 빠르다. 베이징은 정말이지 국가의 수도로서 손색이 없다. 우리 아빠 엄마가 베이징에 온 지는 7 년이 되었다. 아빠는 화물차를 사서 회사에 짐을 운반하고, 엄마는 계속 선생님이라서 매일매일 매우 바쁘다. 나는 한 살 때 아빠엄마를 따라서 베이징에 왔고 두 살 때부터 탁아소에 가기 시작하여 바로 이어서 유치원을 3 년 다니고 지금은 이미 초등학교 3 학년이 되었다. 내 고향은 비록 아름답지만 베이징 이 곳이 내가 진정 생활하는 지역이다. 나는 나의 고향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나를 오랫동안 길러준 베이징을 더 사랑한다.”¹³²

따라서 유아기 때 부모를 따라 도시로 이주하여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서 성장하는 농민공 자녀들의 삶은 그들의 부모의 삶만큼이나 고달픈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집’에서 파생된 ‘동심실험학교’, ‘아동 문화예술제’, ‘농민공 자녀의 목소리’ 등과 같은 공동체 활동들은 아이들의 문화·교육·심리적인 복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피춘의 ‘노동자의 집’ 사례는 신세대 농민공이 업연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문화·교육·심리적인 측면의 복지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기반으로 또 다른 농민공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지방정부, 기업 등과 연계를 맺어서 궁극적으로 신세대 농민공이 상품화, 원자화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었다. 이처럼 ‘노동자의 집’에서 운영하는 여러 공동체들이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 다른 복지주체들의 후원을 받고 이들과 연계할 수 있었던 것은 신세대 농민공이 ‘공동체’로 존재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쑨형과 함께 ‘노동자의 집’을 세우는데 일조한 왕더지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 세대는 목표가 명확하다.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서의 생활을 위해 이주를 통하여 영원한 도시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신세대 농민공이 정신문화적인 측면도 도시인을 닮기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³ 따라서 국가, 기업과 같은 복지주체가 갈수록 커져만 가는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문화적인 복지욕구까지 미처 신경쓸 여력이 없는 중국의 현실에서 판시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는 대안적인 복지주체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¹³² 工友之家 홈페이지, 2011-11-03, 我爱我家更爱北京.

(<http://www.dashengchang.org.cn/Article/ShowInfo.asp?ID=693>, 2012년 5월 4일 검색).

¹³³ 黄传会, 2011, p.52.

제 2 절 항저우 ‘민초의 집’

(1) ‘민초의 집’ 설립자들의 판시 형성과정

현재 베이징 ‘노동자의 집’과 같이 신세대 농민공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공동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항저우 ‘민초의 집’은 그 중 하나이다. ‘민초의 집’을 설립한 장시[江西]출신의 쉬원차이[徐文财, 徐文財]는 1994 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항저우로 이주하여 농민공 생활을 시작하였다. 한 인터뷰에서 쉬원차이에게 ‘민초의 집’설립 배경에 대해 묻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05 년 말에, (나는) 어느 때와 같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광둥성의 사는 한 여성 노동자가 연속 72 시간 동안 추가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때 내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 나는 노동자의 생활을 변화시킬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만 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었다. 그러던 도중 눈앞에서 우리의 동료가 또 다시 과로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해야 했다. 당시 어떤 기사에서는 “이 노동자의 죽음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다.”라고 보도하였는데 나는 ‘다음은 누구인가? 분명 우리의 형제자매일 것이고, 분명 우리 중국 동포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서른 살 때 나는 스스로에게 ‘반드시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만 하고, 일의 성패와 상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 이 일이 잘 되어서 기반을 마련한다면 사회에 도움이 될 거야’라고 말했다. 우리 농민공 중에는 각종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각종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 나는 이들에게 하나의 기반을 제공하고 싶었고 일종의 기회를 주고 싶었고 모두의 지혜를 한 데 모아 농민공의 현실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원했다.”¹³⁴

이렇게 한 농민공의 죽음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민초의 집’은 쉬원차이를 비롯하여 류밍[刘明, 劉明], 리용귀[李勇国, 李勇國], 뤼충[吕忠], 시중성[石仲胜, 石仲勝] 총 5 명의 신세대 농민공이 2008 년에 세운

¹³⁴ 刘伟, 2011, “草根的家国情怀——“草根之家”创办人徐文财访谈,” 『杭州(我们)』 04, p.51-52.

농민공 자치 공동체이다. 하지만 ‘민초의 집’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련과 좌절이 있었다. 본래 쉬원차이는 2006년에 항저우시 민정국(民政局)에 사회단체 등록을 신청 하였으나 업무주관 단위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쉬원차이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을 독학하여 농민공에게 권익보호, 학습, 취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초의 집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민초의 집’은 비록 온라인에 터전을 두고 있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2007년을 예로 들면, ‘민초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공장이나 공원에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등 농민공의 문화복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많은 경우 공장의 관리인들이 이를 잘 이해지 못하여 공연 현장을 막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쉬원차이와 신세대 농민공 친구들은 자신들을 위한 기반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상의 민초의 집을 다시 현실로 옮기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2008년 11월 현실 속의 ‘민초의 집’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¹³⁵ 이처럼 2006년에 쉬원차이 혼자서 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일을 2년 후에 업연을 기반으로 현실 속에 탄생시킬 수 있었다.

베이징 ‘노동자의 집’과 마찬가지로 항저우 ‘민초의 집’ 역시 판시가 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쉬원차이를 비롯한 나머지 4명의 민초의 집 창립 멤버들은 모두 농민공 출신으로서 온라인 민초의 집을 통하여 판시를 형성하였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온라인 민초의 집은 항저우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농민공들이 함께 교류 할 수 있었는데 류밍의 경우 후난성 출신으로 광둥성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온라인 민초의 집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을 그만 두고 항저우로 이주한 경우이다.¹³⁶ 따라서 온라인에서 형성된 판시는 가상 세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져서 현실 세계의 민초의 집을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현재까지 민초의 집 창단 멤버들은 민초의 집의 주요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신세대 농민공들이 ‘업연’을 중심으로 판시를 형성할 때 단순히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뛰어넘어 ‘농민공’이라는 이유로 서로 소통하며 쉽게 판시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감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¹³⁵ 程灏, 2010, “草根之家:农民工的精神家园,” 『浙江人大』 08, pp.53-54.

¹³⁶ 程灏, 2010, p.53.

(2) 문화·교육·심리적 복지 및 물질적 복지의 실현과 새로운 판시 형성

‘민초의 집’은 ‘노동자의 집’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공동체 내의 다양한 ‘소모임’을 활동을 통하여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문화적인 측면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었다. 첫째, ‘문예 소모임’이 있는데 2012년에 예정되어 있는 활동 목록을 살펴보면 노동자를 위한 노래 배우기, 노동자의 생활을 담은 단막극, 연극, mp3 제작, 음악창작, 춤, 기타, 진행자 훈련, 다큐멘터리 만들기 등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 밖에도 합창단 모임과 전통악기 배우기 모임도 운영되고 있었다.¹³⁷ 그리고 꼭 문화활동을 함께 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구성원끼리의 판시 형성도 활발하였는데 예를 들어, 정월 대보름 같은 전통 명절에 함께 모여 정월 대보름때 먹는 전통 음식인 탕완[汤圆, 湯圓]을 먹으며 간단한 게임을 하고 새해 소망과 계획을 나누는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¹³⁸ 가족과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는 전통 명절에 같은 처지에 있는 농민공끼리 모여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시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며 심리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예 소모임 내에는 베이징의 ‘신노동자 예술단’과 비슷한 ‘민초 예술단’이 있다. ‘민초 예술단’은 민초의 집에 존재하는 소모임 활동 중 가장 활발한 모임 중 하나인데 2008년 노동절인 5월 1일 성립하여 공장이나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며 춘절, 정월 대보름과 같은 전통 명절이나 노동절과 같은 국경일에 행사를 열기도 한다. 2011년 민초 예술단이 직접 건설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영상을 살펴보면 민초 예술단이 고된 일을 하고 있는 농민공에게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상 속의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 겨울에 사실 우리 농민공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우리 농민공보다 더 늦게 자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고귀해요. 그렇죠? 항저우에서 가장 높은 빌딩 80층,

¹³⁷ 草根论坛홈페이지, 2012-02-25, 2012文艺组活动综合信息汇集.

(<http://www.hzcgzj.com/bbs/read.php?tid=2651>, 2012년 5월 15일 검색).

¹³⁸ 草根论坛홈페이지, 2012-02-06, 闹元宵.

(<http://www.hzcgzj.com/bbs/read.php?tid=2614>, 2012년 5월 15일 검색).

100 층짜리 건물은 다 우리가 짓는 거잖아요. (관중에게) 그럴죠? 가장 넓은 대로도 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럴죠? 이제 우리 다같이 즐겁게 놀아봐요.”¹³⁹

진행자의 말이 끝난 후 젊은 남성 한 명이 무대에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고 관중들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무대라고 해도 사실 바닥에는 빨간 천을 깔고 무대 주변에 풍선을 달아놓은 것이 전부였다. 무대 위치 또한 건물과 건물 사이라서 비좁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민공들의 호응은 좋았다. 많은 농민공들이 좁은 길거리에 세워진 임시 공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심지어 자리가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은 담벼락에 걸터앉아서, 어떤 사람들은 무대 옆에 서서 공연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몇몇은 무대 건너편 건물 2 층에서 공연을 보기도 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진행자가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부를 것을 권하자 많은 농민공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따라서 민초 예술단이 노동현장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는 것은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들의 노동가치를 인정해주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심리적 복지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농민공이 일하는 노동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활동하고 있는 민초 예술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2009 년도에 저장대학에 가서 대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한 일이다. 지성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농민공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공연을 한다는 것은 중국 사회로부터 자신들의 존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저장대학 삼농협회와 민초 예술단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공연은 ‘민초연가, 대학교에 가다.’(草根戀歌走进高校, 草根戀歌走進高校)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행사의 프로그램은 농민공들이 대부분 기획하고 연출하였다. 이처럼 ‘민초 예술단’은 예술단원이 아니어도 농민공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외부의 신세대 농민공들까지 정신·문화적인 만족을 누리도록 하고 있었다. 공연은 ‘노동자의 집’ 쑨형이 만든 ‘세계 노동자는 한 가정’을 부르면서 끝이 났는데 현재 중국의 농민공 자치 공동체들의 상호교류가 활발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¹⁴⁰

¹³⁹ 草根论坛 홈페이지, 2011-12-01, 草根艺术团与建筑工人同乐 这个冬天不寒冷!. (<http://www.hzcgzj.com/bbs/read.php?tid=2556>, 2012년 5월 16일 검색).

¹⁴⁰ (<http://bbs.news.163.com/bbs/country/135932833.html>, 2012년 5월 16일 검색).

민초의 집 소모임 활동의 두 번째로는 ‘문학 소모임’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농민공들이 쓴 글들을 모아서 ‘민초’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한 회당 약 3000 부 정도 발행하고 있는 ‘민초’는 약 60 여 페이지 정도의 구성으로 간행물의 형식을 제법 갖추었다. 잡지의 앞 부분에는 ‘민초의 집’에 대한 소개와 ‘민초의 집’ 근황에 대한 글이 실려 있고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여 농민공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의 형식은 시, 수필, 소설, 칼럼 등으로 다양하며 내용은 주로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로 노동현장에서 겪는 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사랑 이야기 등으로 다양했다. 무엇보다 신세대 농민공이 젊은 세대인 만큼 사랑에 관한 글이 일에 대한 글만큼 많았는데 자신이 직접 겪은 연애담이나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초의 집’에서 문학부 활동을 하는 농민공들의 글만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농민공의 글을 공모하여 선정작을 신기도 하였다. 이처럼 신세대 농민공의 글쓰기 열망이 높아지는 것을 보더라도 신세대 농민공의 관심사가 오로지 일과 돈벌이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잡지 ‘민초’는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복지욕구를 잘 파악하여 신세대 농민공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민초’에 실린 글 중에는 ‘민초의 집’을 직접 이용한 농민공들의 후기도 있었는데 그 중 20 대 초반의 앳되어 보이는 한 여성 농민공이 쓴 글을 보면 ‘민초의 집’이 신세대 농민공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제목: 민초, 내 타향의 집(草根是我他乡的家, 草根是我他乡的家)>

“민초의 집, 우연히 알게 되었다. 나는 집을 떠나 향저우에 왔을 때의 첫날 밤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여기서는 너(민초의 집)와 나는 정해진 인연인 것 같다. 그날, 나는 고향친구 몇 명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렴풋이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누군가 “누가 노래 부르는 것 같지 않니? 아마 ‘민초’ 그 방향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안 보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고향친구들을 따라서 나는 너를 처음으로 봤고 한 무리의 농민공들이 어떤 사람은 온 힘을 다해 노래를 불렀고 어떤 사람은 신나게 박수를 쳤고,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넘쳐났다. 나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만족스럽고 유쾌해 보이지?” 호기심이 생겼고, 접근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한참 후에 나는 당신들의 잡지를 보았고(지금은 우리이지만) 점점 너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중간 생략) 줄곧 방관자인 나였지만 결국에는 너를 이해하게 되었고 나는 다시 외지인의 신분이 되고 싶지 않았고 너의 가족이 되고 싶어서 너에게 갔다. 3월 6일 나는 드디어 나의 소망을 실현했고 나는 한 가족이 되었다. 매일 퇴근 후에 나는 자주 여기에 왔다. 고된 하루, 나는 항상 쉴 곳을 찾고 싶었다. 이곳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장소이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는 내가 원했던 느낌 가족의 관심과 가정의 따듯함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형제자매들과 만날 수 있으며 처음부터 인연이었던 것 같다. 다같이 한 가족처럼 수다를 떨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더 없이 귀하다. 고마워 ‘민초의 집’, 너는 내 타향의 집이야. 너는 나에게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고, 헌신을 가르쳐 주었고, 우정을 가르쳐 주었고, 감사를 가르쳐 주었고, 성장을 가르쳐 주었어. 고마워, 너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타향에서 표류하더라도 두려운 느낌이 들지 않게 되었어. 네가 함께해주어서 나는 강해졌어. (생략)”¹⁴¹

위의 글을 읽다 보면 민초의 집에 대해 지나치게 칭찬일색이라서 ‘잡지에 실릴 것을 미리 알고 이를 의식해서 쓴 내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민초의 집’이 타향살이를 하는 신세대 농민공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바로 ‘고향 집’과 같은 곳이라는 점이다. 항저우라는 대도시에서 신세대 농민공은 ‘외지인’이라는 꼬리표를 뱉 수 없었지만 ‘민초의 집’에서 이들은 더 이상 외지인이 아니었으며 서로가 친구이고 가족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심리적인 복지의 실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학 소모임’에서는 이처럼 일반 농민공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잡지를 출간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2명의 농민공이 한 조가 되어서 서로를 인터뷰 한 후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글로 담은 공동 글쓰기작업도 진행하고 있었으며, 고전이나 잡지 ‘민초’를 함께 읽고 독서토론을 진행하기도 하였다.¹⁴² 또한 베이징 ‘노동자의 집’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는데 한 번은 쑨형이 직접

¹⁴¹ 2010, “草根你是我他乡的家,” 『草根』 3, p.1.

¹⁴² 草根论坛 홈페이지, 2011-06-19, 七月份文学组活动计划.

(<http://www.hzcgzj.com/bbs/read.php?tid=2361>, 2012년 5월 16일 검색.);

草根论坛 홈페이지, 2011-06-03, 六月份文学组活动计划.

민초의 집을 방문하여 문학부 모임시간을 이끈 적도 있었다. 쑨형은 이 날 언론 매체가 농민공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보도하는지 그리고 노동자에 관한 새로운 어휘들을 살펴보고 다시 농민공의 관점으로 농민공 기사들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¹⁴³ 이와 같이 문학 소모임에서는 신세대 농민공의 지적 욕구를 만족 시킬만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런 프로그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번 문학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임 후에 토론과 교제 시간을 가지며 새롭게 판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베이징 노동자의 집과 마찬가지로 민초의 집 역시 신세대 농민공이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정신문화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새로운 판시를 형성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모임 활동의 세번째로는, ‘교육 소모임’ 활동이 있었는데 특히 농민공 자녀들을 위해서 항저우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잡지 민초에 실린 한 여성 농민공의 글을 보면 농민공이 도시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인가를 알 수 있다. 동시에 ‘민초의 집’에서 농민공 자녀와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만나는 것은 농민공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초의 집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저장공상대학’, ‘저장수인대학’, ‘중국계량학원’, ‘저장대학’, ‘항저우 직업기술학원’, ‘저장공업대학’ 등의 대학생들이 농민공 자녀에게 무료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¹⁴⁴ 다음은 잡지 ‘민초’에 실린 도시에서 자녀를 키우는 한 여성 농민공의 글이다.

<제목: 아들의 변화>

“나와 남편은 안후이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현재 6 학년이다. 나는 아들이 2 학년이 되었을 때 아이가 공부를 하니까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밖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았고 남편의 스트레스도 커져서 아들이 2 학년 2 학기가 되었을 때 작은 가게를 열어서 생활비를 보탬다. 가게를 열고나니 너무 바빠져서 아이를 돌볼 수 없었다. 한 학기가 지난 후 아들의 성적은 바로 떨어졌고 나와도 갈수록 서먹해졌다. 나와 어떤 말도 하기 원하지

(<http://www.hzcgzj.com/bbs/read.php?tid=2335>, 2012년 5월 18일 검색).

¹⁴³ 草根论坛 홈페이지, 2011-04-28, 文学组四月份活动情况总结汇报.

(<http://www.hzcgzj.com/bbs/read.php?tid=2257&fpage=2>, 2012년 5월 18일 검색).

¹⁴⁴ (<http://www.hzcgzj.com/bbs/index.php>, 2012년 5월 30일 검색).

않았고 1년 후에는 더 심해졌다. 아들은 또 PC방에 가는 것에 빠졌다. 나는 아들을 찾을 수 없었고 아들은 항상 PC방에 갔고 선생님도 나에게 자주 전화를 하여 시간을 내서 아이를 돌보라고 말하며 아이는 참 똑똑한데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여 아이가 외로워 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나는 아들을 위하여 작은 가게를 열지 않았고 전적으로 아이만 돌보았다. 부모인 우리는 문화(교양)가 없어서 아이와 교류하기 어려웠고 아이는 어떤 것도 우리와 소통하려 들지 않았다. 훗날 나는 아들과 함께 ‘민초의 집’에 왔고 우리 아들은 지금 철도 들고 성적도 올랐다. ‘민초의 집’에게 매우 감사하다. 아들을 이렇게 변하게 해주고 작년 개학 후에 다시 보충수업이 열려서 아들을 등록했고 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보충을 받았다. 그 곳에서 아들은 많은 것을 배웠는데 민초의 집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 심경에 많은 변화가 생겨서 지난 학기에 아들은 학교의 우수학생 명단에 들어갔고 상도 몇 개 받았다. 지금은 선생님이 아들이 많이 변했다고 말한다. 공부도 자발적으로 하고 공부의 흥미를 찾았다고 한다.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습관도 많이 변했다. 부모에게 관심을 갖고 집안일도 도와준다. 많은 일들을 혼자 한다. 돈도 예전보다 덜 쓴다. 친구들도 아들을 칭찬하고 나를 가장 기쁘게 했던 것 지난 달 아들이 쓴 “나의 꿈은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란 글이었다. 선생님이 항저우시에 나가서 발표하라고 했고 아들은 자원봉사자 형과 누나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많은 애정을 쏟는다. 아들은 자기가 크면 자원봉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 나는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두 자 “세세”[谢谢, 謝謝, 감사합니다]로 하겠다. 당신들은 내 아들이 인생에 대한 인식을 변하게 해주었고 우리 농민공 가정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과외 선생님이 되어 주었다. 당신들은 무료로 우리 아이에게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었고 당신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의 고독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사회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 우리 같은 집단에게 관심을 갖는 마음이다. ‘민초의 집’은 우리 농민공에게 가장 따뜻한 집이고 ‘민초의 집’은 우리 아이의 마음을 외롭지 않게 해주었고 우리 농민공 마음에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집이다.”¹⁴⁵

¹⁴⁵ 刘义梅, 2010, “儿子的改变,” 『草根』 3, p.15.

이 글도 앞서 등장했던 여성 농민공의 글과 마찬가지로 약간 과장되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 여성 농민공이 자녀와 겪었던 문제는 도시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농민공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일 것이다. 특히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의 일반 아이들과는 다르게 학교와 사회에서 농민공 자녀라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을 겪을 텐데 가정에서도 심리적으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초의 집’은 농민공 자녀들과 대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농민공 자녀들의 문화·교육·심리복지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 여성 농민공의 글에서도 방과 후 수업을 통하여 아들의 성적이 향상된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의 성격이 밝게 변하고 꿈이 생긴 것에 대해 더욱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과 후 도시에서 방황하던 농민공 자녀들은 ‘민초의 집’을 통해 대학생 자원봉사들과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문화·교육·심리적인 복지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쉬윈차이가 민초의 집을 설립할 당시 농민공에게 일종의 기반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본래의 목적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이 밖에도 민초의 집에서는 자매부, 자원봉사부, 체육부, 법률부와 같은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법률부에서는 정법(政法)위원회와 변호사들을 초청하여 농민공이 법적으로 궁급해하는 것들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법적 권리에 눈을 뜨기 시작한 신세대 농민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¹⁴⁶ 그리고 소모임 활동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시 소모임 사이의 교류를 통하여 민초의 집 내부적으로 판시를 더욱 확장해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각 소모임의 조장들은 주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진행하여 각 소모임의 현황을 보고하고 소모임 운영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있었다.¹⁴⁷

민초의 집 소모임 활동이 비교적 전문성을 갖춘 공동체 활동이라고 한다면 민초의 집에서는 그야말로 스트레스 해소나 친목도모를 위한 오락활동도 다양하게 존재 하였다. 민초의 집은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었는데 노래를 틀면 노래방이 되기도 하고 스크린을 통하여 영화를 상영하면 바로 영화관이 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생일을 맞은 농민공에게 생일파티를

¹⁴⁶ 草根论坛홈페이지, 2012-05-29, 法律外展为工友提供免费咨询.

(<http://www.hzcgzj.com/bbs/read.php?tid=2739>, 2012년 5월 31일 검색).

¹⁴⁷ 草根论坛홈페이지, 2012-03-23, 六大小组会议——团结凝聚, 构筑工友互助网络.

(<http://www.hzcgzj.com/bbs/read.php?tid=2685>, 2012년 5월 31일 검색).

열어준다거나 소모임 단위로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판시 형성을 위한 교류가 활발하였다.¹⁴⁸ 아마도 많은 신세대 농민공이 ‘민초의 집’이 실제 집과 같다고 말한 것도 부담없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친구들을 사귀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민초의 집’은 평소에 휴식시간이 생기면 술집이나 PC 방을 배회하던 신세대 농민공에게 건전한 오락거리를 제공하여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문화적인 복지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민초의 집’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농민공에게 물질적인 복지도 제공하고 있었다. 민초의 집 표어는 “자조호조, 자강불식”(自助互助, 自强不息)으로 농민공간의 상호부조를 중시하며 스스로의 힘을 키울 것을 강조하는데 이에 걸맞게 병이 나서 경제적인 후원이 필요한 농민공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자선공연이나 모금활동 등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농민공을 직접 후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9월에는 민초의 집 구성원이었던 23살 청년 황건린[黃根鄰, 黃根鄰]이 요독증(尿毒症)에 걸려 이십만 원(元)이 넘는 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자선공연과 자선바자회를 열었고 여기에서 모인 수익금을 수술비로 전달하여 황건린은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¹⁴⁹ 당시 황건린 사건은 많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2009년 저장 TV에서 방영된 뉴스를 보면 당시 민초의 집에는 “사랑은 존재한다. 황건린 우리는 너와 함께야”라는 문구가 대문 앞에 걸려 있었으며 황건린의 부모를 민초의 집에 초대하여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¹⁵⁰ 자선 공연은 길거리나 공장 지대를 찾아 다니며 여러 차례 열렸고 민초의 집 내에서도 열렸다. 이렇게 민초의 집 농민공들이 아픈 동료들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같은 농민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까지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쉬윈차이는 황건린의 일을 겪은 이후 ‘민초의 집’ 홈페이지에 황건린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전하였는데 황건린은 원래 민초의 집에 후원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⁵¹ 따라서

¹⁴⁸ (<http://www.cgzj.org/html/bzdt/guanyubenzhan/fuwu.html>, 2010년 6월 2일 검색).

¹⁴⁹ 浙江钱江都市频道, 2009-09-24, 草根之家温暖人心尿毒症小伙的命运因它改变. (<http://news.xinmin.cn/rollnews/2009/09/24/2624239.html>, 2012년 6월 2일 검색).

¹⁵⁰ 浙江TV, 范大姐帮忙, 2009 방영.

(http://v.youku.com/v_show/id_XMjMxMzk4NDEy.html, 2012년 6월 2일 검색).

¹⁵¹ 草根之家 홈페이지, 2009-09-21, 黄根邻幸与不幸的故事.

(<http://www.cgzj.org/a/xm/aixinxingdong/2010/1212/341.html#>, 2012년 6월 3일 검색)

민초의 집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신세대 농민공들의 자발전인 후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야말로 판시를 기반으로 한 상호부조가 잘 실현되고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황건린 사건은 민초의 집에서 병에 걸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공의 병원비 모금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민초의 집에서 운영하는 ‘민초논단’이라는 사이트에는 ‘공익행동’이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이곳에서는 병에 걸려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농민공의 사연과 함께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공지가 가장 상단에 올라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황건린처럼 민초의 집의 후원으로 수술을 받게 된 농민공의 사연들이 올라와 있다.¹⁵²

그 중 최근에 올라온 사연은 2012년 5월에 올라온 것으로 민초의 집 회원으로 백혈병에 걸린 20대 여성 우옌제[吴艳杰, 吴艳傑]에 관한 이야기였다. 사회보험 가입율이 낮은 신세대 농민공의 경우에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도시에서 병이 나거나 사고로 다치면 우옌제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행히 우옌제의 사정을 알게 된 ‘민초의 집’에서는 모금운동을 하였고 일주일 만에 약 70여 명이 참여하여 7만원(元)이라는 성금이 모였다. 그리고 민초의 집 구성원들은 기부금뿐 아니라 직접 우옌제의 병문안을 가서 심리적인 위로를 전하기도 하였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옌제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고,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몰랐다. 요 며칠 사이 좋은 사람들이 나를 보러와 주고 격려를 해줘서, 이제는 두렵지 않다. 당신들에게 고맙다!”라고 전했다.¹⁵³

이처럼 타지에서 홀로 병마와 싸워야 하는 신세대 농민공에게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부명단을 살펴보면 민초의 집 회원들이 소액이지만 100~200원(元)씩 기부한 것도 상당하였다.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 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베이징 ‘노동자의 집’이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문화적인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동심창업훈련센터, 여공합작사와 같은 공동체를 통하여 신세대 농민공의 물질적인 복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듯이 항저우 ‘민초의 집’에서도 동료가 병에 걸렸을 때 이를 외면하지 않고 자선공연과 모금활동을 기획하고 직접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상호부조를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¹⁵² (<http://www.hzcgzj.com/bbs/thread.php?fid=17>, 2012년 6월 3일 검색).

¹⁵³ 草根论坛 홈페이지, 2012-05-12, 救助吴艳杰, 爱心行动进行时.

(<http://www.hzcgzj.com/a/xm/aixinxingdong/2012/0504/453.html>, 2012년 6월 5일 검색).

1 세대 농민공이 판시를 기반으로 물질적 복지의 실현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세대 농민공 역시 판시를 통한 물질적 복지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신세대 농민공의 경우 판시를 통하여 물질적 복지뿐 아니라 정신문화 측면의 복지까지 실현하려는 경향까지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

(3) 대안적인 복지주체로서의 가능성 탐색

‘민초의 집’ 역시 ‘노동자의 집’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른 공동체의 경제적인 후원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우선 항저우 지방정부와 저장성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다. 이 외에도, 항저우시 노동감찰 대대, 항저우시 시(市)위원회 선전(宣传, 宣傳)부, 공청단(共青团, 共青團)¹⁵⁴ 항저우시 위원회에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으며 항저우의 병원, 무역회사 등 여러 기업에서도 후원을 받고 있었다.¹⁵⁵ 그리고 이러한 외부 단체체의 경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공동체 활동으로는 ‘민초대강당’이라는 강연회가 있다.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민초대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세대 농민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서도 전문적인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2010 년 같은 경우, 콕스콘 노동자의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던 해였던 만큼 민초의 집에서도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심리적인 부분과 관련된 강연이 많았다. 강연자는 주로 석·박사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자기인식, 성격검사, 심리문제 등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 중에는 자살방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노동계약법’에 관한 강의와 이미지 관리, 말하기 방법 등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연을 진행하였다.¹⁵⁶

2011 년의 경우, 도시에서의 융화과 인생경영에 관한 강의를 주를 이루었다.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로 이주한 이후에 인생 전반에 대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인생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차례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이 외에도 자녀교육, 의사소통,

¹⁵⁴ 공산주의 청년단의 약칭.

¹⁵⁵ (<http://www.cgzj.org/html/bzdt/guanyubenzhan/jiayuan.html>, 2012년 5월 31일 검색).

¹⁵⁶ 草根论坛홈페이지, 2010-05-31, 《草根大讲堂》专贴.

(<http://www.hzcgzj.com/bbs/read.php?tid=1155&fpage=0&toread=&page=3>, 2012년 6월 1일 검색).

비즈니스 예절, 소방지식과 같이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 살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었다. 또한 추가근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여 신세대 농민공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강연에서 다루고 있었다.¹⁵⁷

2012 년은 현재 진행중이지만 직업과 일에 관련된 강의들이 주를 이루었다. 직업윤리, 직업가치에 관련한 강연을 통해 직업에 소명과 목적의식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변호사가 직접 와서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여 일터에서 필요한 법률지식을 알려주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도 와서 강의를 하였다. 강사들은 주로 PPT 와 동영상을 이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신세대 농민공은 마치 실제 학생처럼 필기를 하거나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3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으며 강의 모습은 표면상으로는 어느 일반 대학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강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시간도 있었다. 특히 2012 년에는 ‘민초의 집’ 설립자인 쉬원차이가 직접 나서서 ‘충칭모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쉬원차이는 도시의 농민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대신 농지 처분권을 확보하는 ‘충칭모델’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었다. 즉, 쉬원차이는 도시에서 신세대 농민공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국가가 이들의 복지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자신들을 도시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주는 한 징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쉬원차이는 이어서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신적인 부분에서 강해져야 도시에 융화될 수 있다 말하였다.¹⁵⁸

이처럼 민초대강당은 민초의 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2010~2012 년까지의 강연들을 살펴보면 시기마다 중국의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었고 강의주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문화 생활을 중시하는만큼 이들이 스스로에 대해 건강한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고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갖고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도시에서의 권리를

¹⁵⁷ 草根论坛 홈페이지, 2011-04-05, 《草根大讲堂》专贴.

(<http://www.hzcgzj.com/bbs/read.php?tid=2217>, 2012년 6월 1일 검색).

¹⁵⁸ 草根论坛 홈페이지, 2012-02-14, 《草根大讲堂》2012 汇总贴.

(<http://www.hzcgzj.com/bbs/read.php?tid=2629>, 2012년 6월 1일 검색).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베이징 노동자의 집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문화, 예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면 항저우 민초의 집은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들 위주로 제공하고 있었다.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차별 받지 않고 도시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하지만 경제적, 시간적인 제약들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없는 신세대 농민공에게 ‘민초의 집’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강연회는 신세대 농민공이 진정한 도시인으로 거듭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초의 집’ 역시 지방정부, 기업,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같은 다른 복지주체들과 잘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판시에 기인한 공동체가 대안적인 복지주체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 3 절 소결

베이징 ‘노동자의 집’이나 항저우 ‘민초의 집’은 현재 중국사회와 언론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노동자의 집’은 쑨형이 ‘민초의 집’은 쉬원차이가 각 공동체의 ‘마스코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줄곧 이들에게만 언론과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농민공 공동체가 의식이 깨어있는 신세대 농민공 개인이 혼자서 세웠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공동체의 형성과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공동체’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판시가 있었던 여러 명의 신세대 농민공들이 함께 공동체를 건립하고 현재까지 주요 책임자로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의 집’의 경우에는 다른 농민공 공동체에서 함께 공연을 하다가 알게 된 신세대 농민공들이 판시를 형성하여 ‘노동자의 집’을 건립하였고 ‘민초의 집’은 온라인에서 형성된 판시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1 세대 농민공에 비해 ‘업연’을 중시하는 신세대 농민공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세대 농민공의 ‘업연’은 단순히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친해진 사이를 뛰어 넘어서 사회적으로 같은 취급과 차별을 받는 ‘농민공’끼리 판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사례로 등장하는 ‘노동자의 집’과 ‘민초의 집’은 ‘하나보다 둘이 낫다’라고 하는 핵심가치를 두고 공동체로서 가능한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신세대 농민공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실제로 신세대 농민공 개개인은 연약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형성하고나니 상황은 달라졌다. ‘공동체’ 내의 상호교류와 상호부조를 통하여 문화·교육·심리적인 복지를 신세대 농민공 스스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교류 및 상호부조는 ‘공동체’ 내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농민공 공동체 또는 지방정부, 기업,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신세대 농민공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지혜택이 돌아갔다. 즉, 신세대 농민공이 공동체로 있다 보니 그 존재감이 커져서 다른 공동체의 경제적인 후원을 받기도 이전보다 쉬워졌으며 신세대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더욱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노동자의 집’과 ‘민초의 집’의 경우 현재 NGO 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이나 NGO 기관에서 주관하는 여러 회의에 초청받아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4 장 사례분석 결과

제 1 절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를 통한 복지 실현

베이징 ‘노동자의 집’과 항저우 ‘민초의 집’은 표면적으로 현대적인 NGO 의 모습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형성 및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판시의 전통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 두 사례는 신세대 농민공이 자신들의 물질적 복지뿐 아니라 정신문화적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주체적으로 노력하여 실제로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1 세대 농민공 시기에 일반적으로 농민공을 바라보는 관점은 도시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버는 것 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존재로 농민공이란 존재를 한정시키고 이들이 시장경제에서 ‘상품화’, ‘원자화’ 되는 것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농민공은 단지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하나의 ‘생산요소’이자 ‘저가 노동력’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30년이 지난 현재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2세대 농민공이라 할 수 있는 신세대 농민공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복지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도시는 더 이상 돈벌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지키며 전반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 또한 지난 30년간의 농민공이 이룬 역사를 인정받기 원했으며 도시에서 문화와 예술활동을 통하여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신세대 농민공은 자신들이 시장에서 ‘상품화’, ‘원자화’되는 것을 더이상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장으로부터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국가에서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정신문화측면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역할이 미비한 중국의 현실에서 신세대 농민공들은 판시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연대하며 스스로의 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제도권에 자신들의 복지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신세대 농민공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링허우’ 세대이지만 이들 역시 중국사회에 뿌리깊이 내재된 ‘판시’와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이징 ‘노동자의 집’과 항저우 ‘민초의 집’은 도시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소속감이 필요했던 신세대 농민공에게 새로운 판시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신세대 농민공은 이를 바탕으로 물질적 복지뿐 아니라 문화·심리·교육 측면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신문화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잠깐의 휴식시간이 생긴다고 해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며 술을 마시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던 신세대 농민공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동자의 집’과 ‘민초의 집’의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이곳에 오면 마치 ‘고향 집’에 온 것 같고 ‘가족’을 만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도시인들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당하며 사회교류가 단절되었던 신세대 농민공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곧 도시에서 의지할 곳 없는 신세대 농민공에게 새로운 ‘보호장치’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농촌 출신이 대부분인 신세대 농민공이 함께 모여 농촌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판시에서 기인한 농민공 공동체는 하나가 생기면 그 안에서 다시 여러개의 공동체가 파생되어 더 많은 신세대 농민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노동자의 집’에는 ‘신노동자 예술단’, ‘동심실험학교’, ‘창업훈련센터’, ‘여공합작사’ 등 내부적으로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했으며 특히 ‘동심실험학교’의 경우에는 다음세대인 신세대 농민공의 자녀에게까지 복지혜택이 확대적용되고 있었다. ‘민초의 집’ 역시 내부적으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존재했으며 소모임 사이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새롭게 형성된 판시를 점차 확장해가고 있었다.

판시에서 기인한 농민공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여성 농민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집’에서는 ‘여공합작사’를 통하여 ‘민초의 집’에서는 ‘자매부’ 소모임 활동을 통하여 여성 농민공의 복지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농민공 공동체가 신세대 농민공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 개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려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민공 집단 내에서도 아이, 여성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집단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판시에서 기인한 농민공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파생시켜 공동체간의 상호교류와 상호부조를 통하여 갈수록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농민공 공동체의 복지혜택은 공동체 외부에 있는 신세대 농민공에게까지 돌아가고 있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신세대 농민공의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생산한 다양한 문화를 소비하면서 정신문화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 밖에 있는 신세대 농민공들은 ‘신노동자 예술단’의 공연을 보거나 이들의 음반을 들으면서 또는 ‘노동자 문화예술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정신문화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 능한 신세대 농민공은 각 공동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므로 공동체 구성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문화를 소비할 수 있다. 실제로 ‘신노동자 예술단’에서 만든 노래들은 많은 신세대 농민공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되었는데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주변인’으로 머무르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많은 신세대 농민공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문화를 공유하며 정신문화적인 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뿐 아니라 공동체 외부의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문화적인 복지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열린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제 2 절 농민공 공동체 사이의 상호교류를 통한 복지 실현

‘노동자의 집’과 ‘민초의 집’ 사례를 통하여 도출한 또 다른 특징은 판시에서 기인한 각각의 농민공 공동체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교류를 통하여 더 많은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자의 집’과 ‘민초의 집’처럼 판시에서 기인한 신세대 농민공 공동체는 중국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지역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집’에서는 ‘노동자 문화 예술제’를 개최할 때 다른 지역의 농민공 단체를 초청하거나 ‘신노동자 박물관’에 NGO 전시실을 따로 만들어서 다양한 농민공 자치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었으며 ‘민초의 집’의 경우에도 베이징 ‘노동자의 집’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농민공 자치 공동체들은 자기 공동체만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견제하거나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공동체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새롭게 판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신세대 농민공이 문화·교육·심리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노동자의 집’과 ‘민초의 집’이 다른 농민공 자치 공동체와 어떠한 교류와 도움을 주고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자의 집’과 ‘민초의 집’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관련 사이트를 살펴보면 두 공동체가 어떤 사회단체들과 판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노동자의 집과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들 중 농민공의 복지를 위한 자치 공동체는 약 10 개 정도가 있었다.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하는 공동체만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민초의 집 같은 경우는 관련 사이트에 베이징 노동자의 집을 포함하여 총 2 개의 농민공 자치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베이징 노동자의 집은 농민공 자치 공동체간의 상호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노동자의 집에 연결되어있는 농민공 자치 공동체를 정리해보면 표 4-1 과 같다.

<표 4-1> 노동자의 집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농민공 자치 공동체

지역	이름
베이징	木蘭花開(木蘭花開), 在行動(在行動), 同心希望家園(同心希望家園)
항저우	草根之家
쑤저우	蘇州工友家園(蘇州工友家園)
시안	西安工友之家
충칭	重慶自強(重慶自強)
우한	新農工友家園(新農工友家園)
선전	手牽手(手牽手), 左撇子

출처: 工友之家, (<http://www.dashengchang.org.cn/>, 2012년 6월 5일 검색).

표 4-1의 농민공 자치 공동체들의 복지대상은 주로 전체 농민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주로 신세대 농민공들이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복지 내용과 관련해서도 규모는 작더라도 노동자의 집이나 민초의 집과 비슷하게 농민공의 문화·교육·심리적인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베이징의 ‘목란화개’(木蘭花開, 木蘭花開)의 경우 베이징으로 이주한 여성 농민공과 그의 자녀들을 위한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실제로 몇몇의 젊은 여성 농민공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였다.¹⁵⁹ 그리고 선전의 ‘왼손잡이’(左撇子)는 홍콩 옥스팜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회기업으로 산업재해를 겪은 농민공들의 복지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두유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다.¹⁶⁰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연결되어 있는 농민공 자치 공동체들은 현실 세계에서 상호교류를 통하여 농민공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공동체간의 상호교류는 문화예술공연 방면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었는데 2012년 5월 베이징 노동자의 집의 ‘신노동자 예술단’이 순회 공연으로 쑤저우를 방문했을 당시, 쑤저우 ‘노동자가원(工友家園, 工友家園)’의 신세대 농민공과 함께 합동공연을 진행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공동체의 합동공연 소식은 양쪽 홈페이지에 모두 올라와 있었으며 공연후기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민초의집 홈페이지에도 소식이 올라와 있었다. 쑤저우 ‘노동자가원’의 예술단원들은

¹⁵⁹ (<http://blog.sina.com.cn/mulanhuakai201001>, 2012년 6월 5일 검색).

¹⁶⁰ (<http://zpz2010.com/index.asp?bianhao=1>, 2012년 6월 5일 검색).

공연의 진행과 더불어 전통 악기 공연, 연극 등을 선보였으며, 베이징 신노동자 예술단원들은 자작곡 공연, 중국 전통 만담인 상성 등을 선보였다.¹⁶¹ 페이샤오통이 중국 사회의 기본 틀이 ‘동심원’구조라고 말했듯이 중국의 신세대 농민공들 역시 자치 공동체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심원이 커지는 과정에서 더 많은 농민공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면서 또는 새롭게 판시를 형성해가면서 정신문화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있었다.

‘노동자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상당하여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생산하고 여러 공동체를 운영할 여건이 되었지만 신생 농민공 공동체들은 이러한 여건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노동자 예술단’은 다른 농민공 공동체의 초청에 응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고 타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신세대 농민공들을 위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3월 ‘신노동자 예술단’은 베이징 ‘목란화개’에서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행사에 초청받아 길거리 공연을 진행하였다.¹⁶² 이처럼 농민공 공동체는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상부상조하면서 더 많은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문화적인 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공 공동체 사이의 상호교류는 문화·예술 공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판시형성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에는 노동자의 집 소속인 ‘동심호혜 사회기업’과 ‘동심여공합작사’의 구성원 30여명이 베이징의 ‘동심희망가원’(同心希望家园, 同心希望家園)과 ‘목란화개’를 방문하여 친목을 다지고 이들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호혜점, 유치원등과 같은 시설들을 둘러본 후 공동체 운영에 관한 경험들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¹⁶³ 노동자의 집이 베이징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베이징에 있는 농민공 공동체와의 상호교류가 활발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2011년에는 쑤닝을 비롯한 노동자의 집 구성원들은 베이징의 농민공 공동체 이외에도 칭다오의 ‘신시민가원’(新市民家园, 新市民家園), 톈진의

¹⁶¹ (<http://daheng126.blog.163.com/blog/static/1016740152012461391640/>, 2012년 6월 5일 검색).

¹⁶² 工友之家 홈페이지, 2011-03-07, 新工人艺术团赴木兰社区庆祝劳动妇女节晚会义演活动纪实. (<http://www.dashengchang.org.cn/Article/ShowInfo.asp?ID=416>, 2012년 6월 6일 검색).

¹⁶³ 工友之家 홈페이지, 2012-03-20, 同心互惠探访同心希望家园木兰花开了. (<http://www.dashengchang.org.cn/Article/ShowInfo.asp?ID=803>, 2012년 6월 6일 검색).

‘국인(国仁, 國仁) 노동자의 집’, 윈난[云南]의 ‘춘성 노동자예술단’(春城工友艺术团, 春城工友藝術團), 사먼의 ‘오제(五齐, 五齊)인문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강연, 공연, 토론 등을 통하여 상호교류를 하였다.¹⁶⁴ 이와 같이 중국의 많은 농민공 공동체들은 농민공 자치 공동체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노동자의 집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며 이들의 이념, 가치 등을 공유하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동자의 집’에서도 흔쾌히 자신들의 노하우를 다른 공동체에 전수하고 있었다. 실제로 ‘신노동자 예술단’에서 만든 노래들은 여러 농민공 공동체에서 부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아도 베이징의 집은 농민공 정신문화적인 복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집’은 새로운 농민공 자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직접 후원해주시기도 하였다. 베이징 노동자의 집의 후원으로 세워진 ‘시안 노동자의 집’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시안 노동자의 집은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을 통하여 농민공 자녀에게 무료로 무용, 그림 교육 및 방과 후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민공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일요일 저녁에는 마당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베이징 노동자의 집처럼 호혜점을 통해 중고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길 수익금은 노동자의 집 운영에 쓰인다.¹⁶⁵ 이처럼 시안 노동자의 집은 베이징 노동자의 집의 기본정신을 이어가며 시안 농민공의 정신 문화적인 복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항저우 민초의 집 역시 지방정부와 노동조합의 후원을 받아 비교적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베이징 노동자의 집의 움직임과 목소리에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11년 쑨형이 민초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의 영상을 살펴보면 쑨형은 ‘신노동자 사전’에 대한 계획을 말하며 민초의 집 노동자들이 이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고 ‘세계 노동자는 한 가정’이라는 노래를 민초의 집 사람들과 함께 부른 후 강의를 마쳤다.¹⁶⁶ 민초의 집 홈페이지의 ‘민초정보(草根资讯, 草根資訊)’ 페이지에서도 베이징 노동자의 집에 관한 소식이 자주 올라왔는데 신노동자 예술단의 전국순회공연, 농민공 박물관, 쑨형에 대한 신문기사 등을 쉽게

¹⁶⁴(<http://daheng126.blog.163.com/blog/static/1016740152011101552136673/>; <http://daheng126.blog.163.com/blog/static/1016740152011101503713561/>; <http://daheng126.blog.163.com/blog/static/101674015201192304711544/>; <http://daheng126.blog.163.com/blog/static/101674015201182211015529/>, 2012년 6월 6일 검색).

¹⁶⁵ 陈小玮, 2010, “西行的工友之家,” 『新西部』 11, pp28-30.

¹⁶⁶ (http://v.youku.com/v_show/id_XMjYxNTM2MDgw.html, 2012년 6월 7일 검색).

찾아볼 수 있다.¹⁶⁷ 이와 같이 농민공 자치 공동체들은 공동체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판시를 형성하여 더 많은 신세대 농민공들이 정신문화적인 복지를 실현하도록 돕고 있었다. 그리고 늦게 출발한 공동체가 있다면 이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온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베이징 ‘노동자의 집’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민공 자치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는 노동현장에서 기계 취급을 받고 도시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모두 기댈 곳이 없었던 신세대 농민공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보호장치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절 다른 공동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복지 실현

베이징과 항저우의 농민공 공동체 사례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세번째 특징은 판시에서 기인한 농민공 공동체는 국가, 기업, 지역사회와 같은 다른 공동체와의 상호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판시가 대안적인 복지주체로서 다른 복지주체들과 얼마나 잘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노동자의 집’은 홍콩 옥스팜의 도움으로 ‘노동자 문화예술 박물관’을 세우고 구(區, 區)정부의 지지로 ‘노동자 도서관’과 ‘신노동자 극장’ 등을 건립하였으며 ‘민초의 집’ 역시 지방정부와 저장성 노동조합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두 공동체 모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특히 신세대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공동체를 방문하여 농민공 자녀들을 만나고 무료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른 복지주체들의 재정적 또는 물질적인 후원을 통하여 농민공 공동체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세대 농민공이 판시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건립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세대 농민공이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로 존재하여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커지다보니 농민공 공동체들은 NGO의 자격으로 국가와 사회에 자신들의 열악한 복지 현실과 복지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¹⁶⁷ (<http://www.hzcgzj.com/plus/list.php?tid=3&TotalResult=89&PageNo=2>, 2012년 6월 7일 검색).

하지만 ‘노동자의 집’과 ‘민초의 집’ 같은 농민공 NGO는 국가와 시장에 대항하는 제3영역으로서의 NGO와는 차이가 있다. 살라몬(Salamon)과 안하이어(Anheier)는 비영리(NOP)·비정부(NGO) 부문은 ‘영리를 따르지 않는 분배적 특성’, ‘정부로부터의 분리’, ‘재정적인 자립’,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4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말한바 있다.¹⁶⁸ 여기에 비추어 볼 때 ‘노동자의 집’과 ‘민초의 집’은 정부 및 홍콩 옥스팜 등과 같은 NGO단체와 기업 등의 원조를 받고 있었으며 국가와 시장에 대항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도움을 원하고 있었으며 국가와 협력하여 시장에서 살아 남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동체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판시에 기인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두 공동체 모두 공동체를 설립한 농민공들과 판시가 있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공동체의 주요 직책과 업무를 맡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농민공 자치 공동체들은 스스로를 NGO로 인식하고 다양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서구적인 개념의 NGO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입장에서도 이러한 농민공 자치 공동체를 잘 활용한다면 복지비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농민공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는 1세대 농민공에 비해 복지욕구가 높아진 신세대 농민공의 목소리를 더 이상 억누를 수 만은 없다. 시대는 변하였고 신세대 농민공은 1세대 농민공과 자라온 환경이 다른만큼 이들의 복지개선 요구는 더 이상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신세대 농민공 개개인이 아닌 이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공동체’를 지원함에 따라서 복지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제 4 절 소결

지금까지 ‘노동자의 집’과 ‘민초의 집’ 사례에 대하여 크게 세가지 층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각 공동체를 독립적으로 놓고 각각의 공동체가 신세대 농민공에게 어떠한 복지를 제공하는지 분석하였고 두 번째는 범위를 확대하여 판시에 기인한 여러 농민공 자치 공동체들이 상호교류를 통하여 자신들의 복지를 실현해 가는 것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판시에 기인한 공동체가

¹⁶⁸ Lester Salamon, Helmut Anheier, 1996,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nationally*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국가, 기업, 지역사회와 같은 다른 복지주체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판시에서 기인한 신세대 농민공 공동체는 하나가 형성되면 내부적으로는 다른 공동체를 파생시키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농민공 공동체들과 상호교류와 상호부조를 실현하면서 더욱더 많은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체 밖에 있는 신세대 농민공들 역시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산한 문화를 소비하면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도시에서 모호해지는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판시에서 기인한 농민공 공동체들은 국가, 기업 등과 같은 다른 복지주체들의 후원을 받고 다른 복지주체들과 결합하여 더욱더 안정적인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었다. 국가 입장에서도 공동체를 상대함으로써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판시가 대안적인 복지주체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줄곧 소외되어 왔던 농민공에 관한 것으로 복지의 주요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시장,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이 판시에서 기인한 공동체를 통하여 물질적 복지뿐 아니라 갈수록 중요해져 가는 문화·교육·심리적인 복지를 실현해가고 있는 과정을 담은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하여 중국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실태와 현재 중국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대안적인 복지주체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사회의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로 인하여 경제개발의 혜택과 함께 복지 혜택까지 도시 출신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배운 가, 가진 자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주민 집단인 신세대 농민공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신세대 농민공은 거대한 시장경제가 점령해버린 중국의 대도시에서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상실해가며 상품화, 원자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신세대 농민공은 이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판시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시장으로부터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지켜나가며 복지를 실현하고 있었다. 신세대 농민공은 더 이상 도시에서 생계유지에만 급급하여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대우를 받더라도 소리 없이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주체적으로 자신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제도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이 처한 복지현실은 전체적으로 암담했다. 물질적 복지 측면에서는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초과근무를 하고도 정당한 추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노동계약율과 사회보험 가입율 역시 낮아서 기업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였다. 게다가 중국의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신세대 농민공들은 노동조합의 존재를 모르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 노동조합을 통한 물질적 복지의 실현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많은 신세대 농민공이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신세대 농민공의 물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도시인으로 거듭나고자 도시로의 이주를 결심했던 신세대 농민공은 적은 임금으로 도시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빠듯한 현실 앞에서 도시인처럼 문화·교육·심리적인 복지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즉, 도시로의 이주를 결심했을 때 신세대 농민공이 품었던 이상과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은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복지욕구가 높아진 신세대 농민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1세대 농민공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사회의 안정과 계층간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라도 사회적 약자인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도시에서 ‘생존’이 아닌 ‘생활’을 원하는 신세대 농민공은 물질적 복지뿐 아니라 정신문화적인 측면의 복지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문화·교육·심리적인 부분의 복지실태 역시 처참한 상황이었다. 국가, 기업과 같은 거대 복지주체들은 이제 막 신세대 농민공의 물질적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단계라서 신세대 농민공의 임금인상이나 사회보험의 적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교육·심리적인 복지까지는 미처 신경쓰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시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아서 더 높은 임금과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원하는 신세대 농민공은 정작 휴식시간이 생겨도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고되고 긴 노동을 마치고 잠깐의 휴식시간이 생기더라도 신세대 농민공은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 등이 문화생활의 전부였다. 도시에서 하고싶은 것, 되고싶은 것이 많았던 신세대 농민공들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다.

또한 신세대 농민공은 도시의 제도와 도시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이방인, 주변인 취급을 받고 있었으며 결혼적령기를 지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하여 갈수록 결혼이 어려워져 미혼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심리적인 복지를 실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현장에서도 신세대 농민공을 ‘기계’로 간주하여 노동력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은 점차 커져만 가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2010년 발생한 ‘팍스콘 노동자의 연쇄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세대 농민공 개인 또는 국가, 기업과 같은 거대 복지주체가 해결할 수 없는 신세대 농민공의 정신문화적인 측면의 복지개선을 위하여 대안적인 복지주체가 필요함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문제에 접근하였다. 복지혼합의 관점에서는 국가 이외에도 기업, 시장, 제 3 영역, 비공식 부문(가족, 친구, 이웃) 등 다양한 대상이 복지주체가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인간관계에 기초한 판시가 신세대 농민공의 대안적인 복지주체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중국의 신세대 농민공은 판시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장으로부터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복지를 실현하며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사례로 등장하는 베이징 ‘노동자의 집’과 항저우 ‘민초의 집’의 형성과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실제로 공동체를 건립하기 이전부터 판시가 있었던 여러 명의 신세대 농민공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현재까지 주요 책임자로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의 집’의 경우에는 다른 농민공 공동체에서 함께 공연을 하다가 알게 된 신세대 농민공들이 판시를 형성하여 ‘노동자의 집’을 건립하였고 ‘민초의 집’은 온라인에서 형성된 판시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르렀다.

이렇게 판시에서 기인한 농민공 공동체는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교육·심리적인 복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자의 집’의 경우 ‘신노동자 예술단’, ‘동심실험학교’, ‘동심창업훈련센터’, ‘노동자 문화예술 박물관’ 등을 통하여 신세대 농민공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만든 문화를 즐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심여공합작사’, ‘동심호혜상점’ 등을 통하여 신세대 농민공의 물질적인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민초의 집’의 경우에는 문학, 문예, 교육 방면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민초 예술단’과 잡지 ‘민초’를 발행하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민초대강당’이라는 강연회를 통하여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인생 전반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노동법’, ‘사회보험법’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율이 낮아서 도시에서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신세대 농민공의 처지를 고려하여 병에 걸린 농민공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신세대 농민공의 물질적 복지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두 공동체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판시에서 기인한 신세대 농민공 공동체가 공동체 내부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신세대 농민공이 중요시 하는 문화·심리·교육 측면의 복지에 도움을 준다는 것과 또 다른 농민공 공동체를 파생시킨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외부의 농민공들까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든 문화를 소비함으로써 정신문화적인 복지향상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노동자 예술단’에서 만든 노래는 전국적으로 많은 신세대 농민공들의 애창곡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농촌의 정서와 노동자의 정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며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있었다.

둘째, 판시에서 기인한 농민공 공동체들은 독립적이거나 경쟁적인 구도가 아니라 공동체 간의 상호교류와 상호부조가 활발한 열린 형태의 공동체로서 갈수록 많은 신세대 농민공이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사회적 기반이 없었던 신세대 농민공이 공동체를 통하여 새롭게 판시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판시에서 기인한 농민공 공동체는 지방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과 같은 다른 복지주체들의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판시가 대안적인 복지주체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후원을 받아 더 많은 신세대 농민공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도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상대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세대 농민공 개개인은 연약할 수 있으나 공동체로 존재하다 보니 그 존재감이 커져서 거대 복지주체들의 경제적인 후원을 받기도 이전보다 쉬워졌으며 신세대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판시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복지를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의 원조 등과 같은 제도적인 복지와 결합 시킨다면 국가의 복지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 심리적·물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연구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신세대 농민공에 관한 연구가 주로 양적 방법론 위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신세대 농민공 개개인의 글과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 역시 연구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 차 자료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사례연구에서 심도 있는 관찰이 부족하고 인터뷰 내용의 깊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 글이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문문헌>

- 강진석. 2006. “중국 관시의 구성요소와 곤경사례 연구.” 『중국연구』 37.
- 게리 테일러 저·조성숙 역. 2009. 『이데올로기와 복지』 (서울:신정).
- 김도희. 2009. “중국의 사회적 자본: 사회네트워크를 통한 고찰.” 『중국학연구』 48.
- 김진욱. 2004. “복지혼합의 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연세 사회복지 연구』 11.
- 뤼야동 저·김정미 역. 2002. 『관시와 비즈니스: 중국 비즈니스 문화의 심층구조』 (서울: 다락원)
- 류석춘 편저. 1992.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서울: 나남).
- 류석춘 편저. 2002.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 _____. 김태은. 2002.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家의 재구조화.” 『전통과 현대』 19.
- _____. 장미혜. 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 _____. [외]편역.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그린).
- _____. 왕혜숙. 2007. “한국의 복지현실, 사회자본 그리고 공동체 자유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5.
- _____. 장미혜, 전상인, 정병은, 최우영, 최종렬 공저. 2008. 『한국의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 (서울: 백산출판사).
- 마틴 포웰 외 저·김기태 역. 2011. “비공식 복지.” 『복지혼합』 (나눔의 집).
- 박기순. 1994. “유교에서 본 인간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일 고찰: 모형정립적 접근.” 『한국언론학보』 .
- 백승욱. 1997. “중국 단위복지체제의 해체: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21(4).
- _____. 2007. “후진타오 시대 중국 노동관계의 변화: 노동계약법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중국학회』 9(1).
- 신동면. 2001. “한국의 복지혼합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45.
- 에릭 링마 저·왕혜숙 역. 2011. 『자본주의 구하기』 (북앤피플).
- 에스핑 앤더슨 저·박시종 역. 2007.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오승렬. 2011. “중국 농민공 회류(回流) 및 민공황(民工荒) 병존 현상의 경제적 함의.” 『중소연구』 35(3).
- 오정수. 2006. 『중국의 사회보장』 (집문당).
- 왕간. 2010. “중국노동자의 의식변화와 단체행동: 2010년 자동차산업의 파업 및 그 영향력.” 『한국노동연구원』 .
- 유병호 [외]저. 2002. 『유교와 복지』 (서울: 백산서당).
- 이경아. 2005. “중국사회 가족구조의 변화와 현대적 적응.” 『중국학 연구』 33.
- 이동일. 2011. “공동체에 있어서 유교적 가치의 함의.” 『동양사회사상』 4.
- 이민자. 2007. 『중국 호구제도와 인구이동』 (서울: 폴리테이아).
- _____. 2008. “중국 도시의 농민공 자녀교육: 국가와 민공 자녀학교의 갈등과 타협.” 『동아연구』 55.
- 이선미. 2007. “전통적 공동체와 시민공동체, 시민공동체와 결사체: 이론적 논의.” 한도현 [외]저. 『지역결사체와 시민공동체』 (서울: 백산서당).
- 장윤미. 2004. “개혁시기 중국의 노조모델.” 『한국정치학보』 38(3).
- _____. 2005.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 체제안정과 노동 유연성의 딜레마.” 『중소연구』 29(2).
- _____. 2009. “개혁시기 중국 신노동계급의 형성과 지연망 노동관행의 부활.” 『현대중국연구』 11(1).
- _____. 2011. “중국 농민공의 저항과 조직화.” 『동아시아 브리프』 6(3).
- 전광석. 2009. “복지국가의 기원: 복지국가개편논의의 유형화를 위한 기초.”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19(2).
- 정종호. 2008. “베이징시의 도시재개발 정책과 베이징 동향촌의 변화.” 『현대중국연구』 2.
- 최은영. 2007. “중국 관시 문화의 의미와 그 변용.” 『지방시대』 10(2).
- 크리스토퍼 피어슨 저·현외성, 강욱모 역. 2007. 『전환기의 복지국가』 (파주: 학현사).
- 홍경준. 1999. 『한국의 사회복지체제 연구: 국가 시장 공동체의 결합구조』 (서울: 나남출판).
- 황경진. 2010. “중국 팍스콘 노동자 연쇄 투신자살과 혼다 자동차 파업의 경과 및 주요쟁점.” 『국제노동브리프』 8(7).
- 웨이샤오통 저·이경규 역. 1995. 『중국사회의 기본구조』 (서울: 一潮閣).

<영문문헌>

- Aspalter, Christian. 2002. *Discovering the welfare state in East Asia* (London: Praeger)
- Bell, Daniel A. 2003. *Confucianism for the Modern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an, Yanjie and Ang, Soon. 1997. "Guanxi Networks and Job Mobility in China and Singapore." *Social Forces* 75(3).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 Chan, Jenny and Pun, Ngai. 2010. "Suicide as Protest for the New Generation of Chinese Migrant Workers: Foxconn, Global Capital, and the State." *The Asia Pacific Journal* 37(2/10).
- Croll, Elisabeth J. 1999. "Social Welfare Reform: Trends and Tensions." *The China Quarterly* 159.
- Dixon, John. 1981. *The Chinese welfare system, 1949-1979* (New York: Praeger).
- Dunning, John H and Kim, Changsu. 2007. "The Cultural Roots of Guanxi: An Exploratory Stud." *The World Economy* 30(2).
- Evers, Adalbert. 1995. "Part of the Welfare Mix: The Third Sector as An Intermediate Area."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6(2).
- Fan, Jie and Taubmann, Wolfgang. 2002. "Migrant Enclaves in Large Chinese Cities." in John R. Logan ed. *The New Chinese City: Globalization and Market Reform*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Fitzpatrick, Tony. 2001, *Welfare Theory: An Introduction* (Palgrave: Houndmills).
- Gold, Thomas and Guthrie, Douglas and Wank, David. 2002. *Social Connections in China: Institutions, Culture, and the Changing Nature of Guanx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dman, Roger and White, Gordon and Kwon, Huck-ju 편저. 1998.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Welfare Orientalism and the State* (London: Routledge)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 _____. 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2.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in Peter Marsden and Nan Li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Sage Publications).
- Guthrie, Douglas. 1998. "The Declining Significance of Guanxi in China's Economic Transition." *The China Quarterly* 154.
- Holiday, Ian and Wilding, Paul 편저. 2003. *Welfare Capitalism in East Asia: Social Policy in the Tiger Economies* (Palgrave Macmillan).
- Hwang, Andrew B. 1997. *Producing Guanxi: Sentiment, Self, and Subculture in a North China Villag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Hwang, Kwang-kuo. 1987. "Face and Favor: The Chinese Power Ga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4).
- King, Ambros Y.C. 1991. "Kuan-hsi and Network Building: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Daedalus* 120(2).
- Ledeneva, Alena V. 1998. *Russia's Economy of Favou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o, Yadong. 1997. "Guanxi: Principles, Philosophies, and Implications." *Human Systems Management* 16.
- Ma, Laurence J.C and Xiang, Biao. 1998. "Native Place, Migration and The Emergence of Peasant Enclaves in Beijing." *The China Quarterly* 155.
- Mayo, Marjorie. 1994. *Communities and Caring: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New York: St. Martin's Press)
- Oi, Jean. 1988. "The Chinese Village." in Bruce Reynolds ed. *Chinese Economic Policy: Economic Reform at Midstream* (New York: Paragon House).
- Salamon, Lester and Anheier, Helmut. 1996.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nationally*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 Smart, Alan. 1993 "Gifts, Bribes, and Guanxi: A Reconsideration of Bourdieu's Social Capital." *Cultural Anthropology* 8(3).
- Waler, Andrew G. 1986.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Yan, Yunxiang. 1996. "The Culture of Guanxi in a North China Village." *The China Journal* 35.
- Yan, Yunxiang. 1996. *The Flow of Gifts: Reciprocity and Social Networks in a Chinese Vill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 Yang, Mayfair Mei-hui. 1994. *Gifts, Favors, and Banquets: The Art of Social Relationships in China* (Cornell University Press).
- Yang, Mayfair Mei-hui. 2002. "The Resilience of Guanxi and Its New Deployments: A Critique of Some New Guanxi Scholarship." *The China Quarterly* 170.
- Zhao, Yaohui. 2008. "The Role of Migrant Networks in Labor Migration: The Case of China."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21(4).

<중문문헌>

- 包丽颖, 陈柳钦. 2011. "新生代农民工就业困境再探讨." 『中国青年研究』 04.
- 白臻. 2011. "从儒家民本思想谈富士康跳楼事件." 『商品与质量』 S4.
- 陈祥丽. 2011. "职工权益自救的逻辑与企业应对之道:基于南海本田罢工事件的思考." 『人才资源开发』 09.
- 陈小玮. 2010. "西行的工友之家." 『新西部』 11.
- 程灏. 2010. "草根之家: 农民工的精神家园." 『浙江人大』 08.
- 程奕健. 2011. "农民工对老乡会倾向性的实证研究." 『广东农业科学』 14.
- 符平. 2006. "青年农民工的城市适应: 实践社会学研究的发现." 『社会』 02.
- 高文盛, 席嘉资. 2002. "资源辨析: 社会网视角中的关系网——关系网研究扫描." 『中南民族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04.
- 国虹. 2009. "互动与新生代农民工的文化需求:以Q市H区为例." 『消费导刊』 18.
- 韩云鹏. 2010. "新生代农民工教育培训状况及对策思考." 『职教论坛』 31.
- 黄传会. 2011. "皮村告诉我." 『文学自由谈』 03.

- _____. 2011. “皮村——聚焦新生代农民工.” 『北京文学(精彩阅读)』 03.
- 黄先碧. 2008. “关系网效力的边界来自新兴劳动力市场的实证分析.” 『社会』 06.
- 黄毓琳. 2009. “论青年农民工打工文化的塑造.” 『中国青年研究』 10.
- 何宏光, 李远行. 2008. “中国社会语境下关系网的发生、运作和变迁.” 『安徽大学学报(社会科学版)』 01.
- 何奇飞, 陈友庆. 2011. “新生代农民工心理问题分析.” 『经营管理者』 04.
- 蒋园园. 2011. “民工子女教育政策执行复杂性多维度分析.” 『中国教育学刊』 08.
- 季贤平. 2011. “浅论宁波新生代农民工的文化享受.” 『大众文艺』 01.
- 李红艳. 2011. “新生代农民工就业信息获取渠道中的断裂现象.” 『青年研究』 02.
- 李辉, 浦昆华. 2011. “新生代农民工的婚恋心理冲突探析.” 『江西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04.
- 李慧. 2011. “对农民工社会保险问题的几点思考.” 『中国证券期货』 04.
- 李佳, 阿灯. 2011. “从皮村开始关于打工文化艺术博物馆.” 『当代艺术与投资』 06.
- 李培林. 1996. “流动民工的社会网络和社会地位.” 『社会学研究』 04.
- 李志明. 2011. “社会保险法亮点、缺憾及后续立法方向.” 『河南科技学院学报』 01.
- 梁冬梅. 2010. “本田罢工:分水岭.” 『共产党员』 14.
- 刘忱. 2010. “关注“打工文化”的力量——以“工友之家”为例.” 『中国党政干部论坛』 09.
- 刘继同, 左芙蓉. 2011. “和谐社会处境下和谐家庭建设与中国特色家庭福利政策框架.” 『南京社会科学』 6.
- 刘建华. 2011. “南海本田工资集体协商案始末.” 『小康』 08.
- 刘杰杰. 2011. “80后农民工婚恋障碍分析-基于苏州、无锡、南京等8市的调查.” 『南京人口管理干部学院学报』 03.
- 刘林平. 2002. 『关系, 社会资本与社会转型: 深圳“平江村”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刘瑞芳. 2011. “新生代农民工文化需求保障机制研究.” 『科技情报开发与经济』 29.
- 刘伟. 2011. “草根的家国情怀——“草根之家”创办人徐文财访谈.” 『杭州(我们)』 04.
- 刘岳后, 郑勇, 杜萍. 2009. “苏北外来民工子女教育现状的调查研究.” 『江苏教育研究』 04.
- 卢悦, 刘红梅. 2011. “本田零部件公司劳资冲突成因分析.” 『人力资源管理』 07.
- 吕锐. 2010. “外来民工子女教育问题与对策.” 『教育科研论坛』 04.
- 马聪. 2001. “关系网的渊源与村落经济的重组.” 『学习论坛』 002.

- 齐心. 2007. “延续与建构: 新生代农民工的社会网络.” 『江苏行政学院学报』 03.
- 钱扑, 李明丽. 2010. “推进教育公平的改革举措——上海民工子女教育政策演变剖析.” 『教育研究与实验』 06.
- 邱静. 2010. “田罢工显现薪酬体系问题.” 『人力资源』 07.
- 全国总工会新生代农民工问题课题组. 2010. “关于新生代农民工问题的研究报告.” 『江苏纺织』 08.
- 司洪玉博. 2011. “富士康管理事件行为分析.” 『经济研究导刊』 19.
- 宋阳. 2011. “新生代农民工心理问题与价值观变迁研究述评.” 『南京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03.
- _____, 闫宏微. 2011. “新生代农民工心理问题与价值观变迁研究述评.” 『南京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03.
- 孙耀明, 梁捍江, 李娜. 2011. “新生代农民工融入城市过程中信息需求问题研究.” 『产业与科技论坛』 18.
- 唐蹊. 2010. “新生代农民工教育培训的困境与出路.” 『中国培训』 07.
- 佟哲. 2010. “我国流动人口社会保障问题浅析.” 『科技创业月刊』 06.
- 童星, 林閏綱. 『中国农村社会保障』 (北京: 人民出版社).
- 王春光. 1995. 『社会流动和社会重构: 京城浙江村研究』 (浙江人民出版社).
- 王培安. 2010. “完善流动人口社会保障制度的思考.” 『行政管理改革』 07.
- 王强, 刘冬. 2011. “新生代农民工社会保障问题探究.” 『企业导报』 12.
- 王茹, 李亚辉. 2010. “农民工劳动合同中存在的问题及原因分析.” 『乌鲁木齐职业大学学报』 .
- 王绍光, 何建宇. 2004. “中国的社团革命——中国人的结社版图.” 『浙江学刊』 06.
- 王伟华, 高化田. 2011. “从富士康事件到企业管理.” 『经营管理者』 06.
- 王锡苓, 汪舒, 苑婧. 2011. “农民工的自我赋权与影响: 以北京朝阳区皮村为个案.” 『现代传播(中国传媒大学学报)』 10.
- 王秀英. 2012. “新生代进城务工者婚恋生活状况调查.” 『中国妇运』 02.
- 王毅杰, 童星. 2004. “流动农民社会支持网探析.” 『社会学研究』 02.
- 吴迪. 2011. “社会转型期新生代农民工的婚恋问题研究.” 『产业与科技论坛』 13.
- 吴明权. 2012. “农村空巢老人生存质量及生活满意度调查.” 『中国公共卫生管理』 01.
- 小吴. 2011. “常回家看看纳入法律未必管用.” 『中国质量万里行』 02.

- 熊新发. 2011. “从南海本田罢工事件看事后企业的应对策略.” 『中国人力资源开发』 07.
- 徐明天, 徐小妹. 2010. 『富士康真相:还原真实的富士康』 (浙江大学出版社).
- 颜昌武, 朱泳东. 2010. “本田事件:中国劳工维权的理性标本.” 『决策』 08.
- 杨与肖. 2011. “本田罢工门.” 『汽车商业评论』 02.
- 杨卓, 轩杨明. 2011. “社会保险法(草案)之我见.” 『法制与社会』 05.
- 郁建兴, 吴宇. 2003. “中国民间组织的兴起与国家—社会关系理论的转型.” 『人文杂志』 04.
- 曾小龙, 胡武贤. 2008. “多元化治理:破解同乡村管理难题的良方.” 『求实』 01.
- 张蕾, 潘芳. 2011. “新生代农民工社会网络构成及作用分析.” 『经济研究导刊』 34.
- 张闫丽, 张敏. 2011. “富士康事件后人力资源管理角度的反思.” 『现代商贸工业』 17.
- 郑也夫, 彭泗清. 2003. 『中国社会中的信任』 (中国城市出版社).
- 周伟文, 侯建华. 2010. “新生代农民工阶层:城市化与婚姻的双重困境——S市新生代农民工婚姻状况调查分析.” 『社会科学论坛』 18.

<웹 사이트>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index.htm>
- 노동자 문화예술 박물관(打工文化艺术博物馆): <http://www.dagongwenhua.org.cn/>
- 노동자의 집(工友之家): <http://www.dashengchang.org.cn/>
- 동심실험초등학교(同心实验小学): <http://www.tongxinedu.org/>
- 동심호혜상점(同心互惠商店): <http://www.tongxinhuhui.org/>
- 민초논단(草根论坛): <http://www.hzcgzj.com/bbs/>
- 민초의 집(草根之家): <http://www.hzcgzj.com/>
- 순형 블로그(孙恒博客): <http://daheng126.blog.163.com/>
- 유쿠[优酷]: <http://www.youku.com/>
- 중국공회통계조사(中国工会统计调查): <http://stats.acftu.org/>
- 투더우왕[土豆网]: <http://www.tudou.com/>
- Fail Labor Association: <http://www.fairlabor.org/>

<신문 및 영상자료>

공인일보(工人日报)

신민주간(新民周刊)

신화망(新华网)

중국노동 자문망(中国劳动咨询网)

중국문화 전매망(中国文化传媒网)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환구인물잡지(环球人物杂志)

중국 절강TV(浙江卫视)

홍콩 봉황TV(凤凰卫视)

ABSTRACT

Welfare Provided by China's Guanxi for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 Focused on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

Chai, Solin

Department of Area Studi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that was born in the 1980s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has formed the community arising from guanxi network and materialize welfare. Currently, China's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faces the crisis of 'atom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in the cities and labor fields that are riddled with market logic.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which has migrated to cities in the hope of becoming city people is treated as strangers and aliens and are discriminated against and neglected in the cities. And the labor fields regard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merely as machines rather than human being and are interested only in their labor.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welfare programs for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to live in the cities, maintaining the dignity and sociality as human being. China's welfare realities, however, are such that the welfare benefits provided by the state are concentrated in people from cities due to dual social structure of urban and rural areas that has been maintain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o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which is the group of immigrants, does not receive the welfare benefits properly provided by the state. Fortunat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gun to pay attention to the enhancement of welfare for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who ar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but considering that China is the most populated country in the world and is developing its economy, there are limitations to approaching the welfare for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from the viewpoint of universal welfare.

This research approaches welfare for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from the viewpoint of mixed welfare, and explored whether *guanxi*, which is based on human relations such as families, friends, and neighbors, functions as alternative main agent of welfare for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Through case analysis, roughly three implications regarding the enhancement of welfare for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could be derived.

First, the community of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arising from *guanxi* contributes to welfare in the aspects of culture, psychology, and education of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by materializing mutual aid within the community, and makes another community of migrant workers be derived, and attains the enhancement of moral cultural welfare by having the migrant workers consume the culture creat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Second, migrant workers communities arising from *guanxi* are not independent and competitive but open communities where mutual exchange and mutual aid are active among them, so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has been receiving increasingly many welfare benefits through such communities.

Third,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arising from *guanxi* was receiving economic support from other welfare main agents such as local governments, enterprises, and regional communities, and this shows that *guanxi* can become the alternative welfare main ag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community, it can receive economic supports and provide welfare for mor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and even for their children, and also from the viewpoint of the state, it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welfare of new generation migrant of workers by dealing with communities at small cost.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whose goal is to become permanent city people, wanting 'living' rather than 'existence,' is forming protective devices for themselves by autonomously coping with the crisis of 'atom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What has played a decisive role in this process was the communities arising from guanxi.

The individual members of the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can be weak and vulnerable, but they exist as a community and achieve visible results and influence Chinese society, so these migrant workers communities are invited to various meeting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n China in the capacity of NGO and pronounce their opin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realities to established institutions. The Chinese migrant workers autonomous communities, however, are different from NGO in the Western concept in that, unlike NGO as the third sector confronting the state and the market, they struggle to survive the market with the help of the state and in cooperation with the state.

Key words: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Guanxi, Network, Community, Chinese NGO, Chinese Welfare, Mutual Aid, Psychological Welfare, Welfare Mix.